연못골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연못골 제 627호

6-7



그해 우리는
서로의 선부름이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함께 마주하던 졸음이었습니다

남들이 하고 사는 일들은
우리도 다 하고 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발을 톡톡 건드리던 발이었다가
화음도 없는 노래를 부르는 입이었다가

고개를 돌려 마르지 않은
새 녘을 바라보는 기대였다가

잠에 든 것도 있고
다시 눈을 감는 선장이었습니다

박준 시인의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문학과지성사, 2018) 중에서 '선잠'.



CONTENTS

2026년 6-7월호

04 이달의 말씀 **연동의 말씀 영성, 데바레카** 김주용 위임목사

06 특집: HI청년공동체 단기선교 **국경을 넘은 HI청년들의 산 소망, 그 땅에 씨앗으로 심기다**

연못골 광장

15 1018예수사랑 **내가 좋아하는 축구** 박시준 성도(유년부 2학년)

16 345스팟 **소그룹 공동체와 성경공부에 대한 소회** 이안나 집사(드림2구역)

18 2030새벽이슬 **기억하라** 김경민 성도(HI청년공동체)

19 살며생각하며 **사랑과 애정** 김형규 공로안수집사(중구구역)

청년광장

20 HI청년공동체 **한여름보다 더 뜨겁게, 섬김과 선교로 달린 HI청년들**

22 HI청년들 이야기 **우리가 대신 걷자! 6K 월드비전런**

주님과 함께하는 삶

24 믿음의 스포츠인(4) **그라운드 위의 예배자, 이재성 선수** 오한빛 목사

26 궁금해요 Q&A(4) **디지털 시대, 기독교인의 올바른 유튜브 활용 가이드** 계대윤 목사

28 소그룹 탐방(9) **영혼을 깨우는 청아한 울림, '토브'**

30 이달에 보는 연동역사이야기(1) **95년 역사를 가진 연동교회 여름성경학교** 이혜석 권사

31 연동 북하우스(26) **나오미, 다시 이름을 찾다**

선교

32 선교지에서 온 편지 **스위스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변화** 김명환 선교사
34 중국어예배반, 필리핀예배공동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올린 '다문화의 날'**
36 중국어예배반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범경은 신학생(중국어예배반)

청소년주일학교 소식

37 2026 청소년주일학교 여름사역 안내
38 청소년주일학교
46 제33회 서울시 어린이 종합대회

연못골 사람들

47 연못골과 함께하는 공동 기도문(1) **노환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선포의 기도**
48 왓두유뽀리빙(9) **교회 안과 밖이 같은 사람 류창현 집사**
50 HI연동청년, 창업/직업도전기(24) **보증보험 매니저 김지원 청년**
52 새신자 어게인(27) **"우리의 교회를 찾아 10개월간 14교회를 탐방했습니다" 이정관·정신영 성도 부부**
54 지체들
67 7.8월 행사안내
69 연동복지재단
70 신협 현황, 목양위원회
71 연동컬러링

제목: 필리핀과 한국, 말씀으로 하나된 순간
재료: 사진에 AI(ChatGPT+Gemini)
제작일: 2026년 7월 15일
그림 내용: 박주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필리핀 산타클라라 지역 아이들과 HI청년들의 모습을 AI로 재구성한 이미지입니다.
제작자: 연못골 편집부



연동의 말씀 영성, 데바레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는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의 흐름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도 새로운 길을 찾게 하였습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던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편의성에 많은 성도는 또 다른 예배의 형태를 조금씩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험과 참여, 감정과 공동체 속에서 영성의 기반을 다졌던 코로나 이전의 영성은 그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코로나로 인해 혼란에 빠졌습니다. '함께하지 않는 영성도 영성인가, 감정의 공감이 없는 영성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라는 물음이 던져지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영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영성의 출발과 뿌리는 '오직 말씀'에서 시작됨을 고백하며, 더 근본적인 영성훈련을 꿈꾸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바레카' 영성훈련입니다.

'데바레카'는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는 '주의 말씀'의 성경 속 히브리 원어입니다. 또한 시편 1편 2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말씀을 가까이 읽고 묵상하는 삶에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라고 하며, 성경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형성하고 운행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단지 눈으로 훑어보는 책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 읽고 삶으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육신 된 삶의 길잡이요, 영적인 어둔 길의 등불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급속도로 발전되어 가는 AI와 디지털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영상과 이미지에 더욱 익숙해지게 하는 대신, 활자와 글은 점점 멀리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순간적인 자극으로 느끼게 하는 경험과 감각의 메시지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입으로 소리 내어 읽어야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록된 말씀으로 교회(거룩한 백성의 한 사람과 그 거룩한 무리가 모인 공동체)에 맡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김주용 위임목사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데바레카'라는 이름으로 성경통독의 영성을 키우는 영혼훈련을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예배와 말씀은 경건의 삶의 기본입니다. 그 안에서 '데바레카'는 모든 교인이 함께 동참하여 하나의 말씀 영성으로 나아가도록 이끌 새 영을 허락받게 하는 영성훈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말씀을 '읽는' 영성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연애편지를 읽고 또 읽게 되듯이,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세련된 프로그램과 제자훈련 속에 성경이 끼워 맞춰진 채로 성경을 보았다면, 이제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가도록 이끄는 영성적 말씀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살아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책이며,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고, 주님 오실 날까지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안 읽을 수는 있고 찾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읽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 안에 영성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성서학자 톰 라이트(N. T. Wright)는 "성경은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고 행동하게 하며 끝내는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영성을 오감과 심정으로 하는 차원에서 삶과 일상, 행동과 실천 속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 500여 년 전 교회 개혁을 위해 마르틴 루터가 외쳤던 '오직 성경'의 개혁교회 DNA를 이어받은 연동교회가 되어, 마지막 날까지 지켜내는 '데바레카' 영성훈련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말씀으로 영성을 지켜가던 데바레카 영성이 작은 싹을 틔웠고, 이제 조금씩 줄기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데바레카 성경통독과 연초에 함께하는 데바레카 성통 카톡 소그룹, 데바레카를 중심으로 개설했던 YBS 성경공부반들, 그리고 이번 6월 데바레카 성경통독 수련회와 가을에 다시 모일 데바레카 영성 수련회를 통해 우리 교회는 말씀의 영성을 교회 전체로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본이 되는 데바레카 영성훈련으로 새 영을 받는, 남아 있는 2026년이 되길 축복합니다.

국경을 넘은 HI청년들의 산 소망, 그 땅에 씨앗으로 심기다

▷태국 단기선교: 6월 28일~7월 4일(6박 7일)
조창우 전도사 외 17명
▷필리핀 단기선교: 6월 29일~7월 10일(10박 11일)
박주안 목사 외 17명



기획 및 정리 : 박현미 편집장
자료 제공: HI청년공동체

태국 엘림 허팍에서 학생들과 함께 한 운동회

“우리가 전한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태국과 필리핀 선교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을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2026년 청년부의 단기선교 주제는 “우리의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 (Our Living Hope, Jesus Christ)”였습니다.

언어와 문화, 살아온 환경은 서로 달랐지만, 선교팀과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서로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현지 교회와 여러 사역지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셨음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산 소망을 전하기 위해 그 땅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영혼들을 통해 우리 안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일깨워 주셨고, 이미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린이 사역, 교육 사역, 공연 사역, 피딩 사역, 복음 전도 등 준비한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었습니다.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축복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며 하나의 교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섬김과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안에서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믿으며 목도했습니다.

이번 선교는 현지에서의 일정이 끝난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학교, 직장, 그리고 교회와 일상으로 이어 가는 새로운 선교의 시작입니다. 또한 태국과 필리핀에 심어진 복음의 씨앗이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선교팀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모든 일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 주신 사랑과 후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중보기도로 함께해 주셨기에 선교 현장마다 소망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과 필리핀에서 울려 퍼졌던 소망의 노래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동의 순간들을 이제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그 땅의 교회와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 박주안 목사

필리핀 단기선교

▶ 선교 장소: 바탕가스 시티

▶ 종교: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로, 인구의 약 80% 이상이 로마 가톨릭 신자.
개신교는 다양한 종파를 합쳐서 약 9% 정도로 구성

▶ 선교 날짜: 6월 29일(월) - 7월 11일(목) : 10박 11일

▶ 담당교역자: 박주안 목사

▶ 선교팀원(18명)
박주안 목사, 강희수, 김경민, 김예나, 김태원, 김연후, 민다은, 박혜진, 성유정(부총무), 성해누리, 육기돈, 윤현종(총무), 정영균, 조민경(팀장), 최승렬, 홍진희, 황보예원, 황보재윤



바탕가스 장로교회에서 부채춤 사역


'불리한' 지역 아이들과 함께

▶ 주요 일정

날수	날짜	주요 활동
1일차	6/29(월)	필리핀 입국 · 바탕가스로 이동 및 사역지 방문, 오리엔테이션.
2일차	6/30(화)	바탕가스 대성당 방문, '불리한' 교회 사역 (피딩 및 어린이 사역)
3일차	7/1(수)	'둘루한' 지역 사역, 현지 수요 기도회 참석
4일차	7/2(목)	킹스키즈 기독학교 사역, '산타클라라'지역 사역
5일차	7/3(금)	'둘루한' 지역 사역, 현지 수요 기도회 참석
6일차	7/4(토)	새벽 길거리 빵&커피 나눔 사역, '빡아사 센터 사역', 시공원 버스킹
7일차	7/5(주일)	주일 대예배(특별순서), KFC 어린이 집회, 바나바 애플교회 방문, 선교 특강, Fil-kor Night
8일차	7/6(월)	'띠빅센터' 사역
9일차	7/7(화)	바탕가스 문화체험 및 휴식
10일차	7/8(수)	음악 교육 사역, 자메스 공립초등학교 사역, 몬테마리아 방문, 수요 기도회 참석
11일차	7/9(목)	마닐라 이동 및 출국

[필리핀 단기선교 소감]

하나님께서는 바탕가스 땅의 척박한 현실과 영혼들을 보게 하시며, 제 자신에게만 갇혀 있던 시선을 넓혀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선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을 깊이 배웠습니다. 특별히 매번 지역 사역을 나갈 때마다 마주했던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 속에서, 그리고 묵묵히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 있는 소망'임을 생생하게 깨달았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이 당장 완벽히 풀리지 않더라도,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어루만지시는 예수님 그 자체가 가장 확실한 '산 소망'이심을 이번 선교를 통해 고백합니다./ 조민경 자매(HI청년공동체 선교팀장)



산타클라라 지역에서 태권도 공연 사역



스킷드라마 공연 사역 중 예수님(육기돈 형제)



KFC(Kids For Christ) 사역 후 단체사진

태국 단기선교

▶ 선교 장소: 치앙마이

▶ 종교: 국민의 약 90~95%가 불교를 믿고 있으며 개신교는 약 1%

▶ 선교 날짜: 6월 28일(주일) - 7월 4일(토) : 6박 7일

▶ 담당교역자: 조창우 전도사

▶ 선교팀원(18명)

조창우 전도사, 구자현(부팀장), 김민성(부총무), 김민준(미디어팀장), 김보성(물품팀장), 김승규, 김예랑, 김태양, 송하람, 유승, 윤주원, 이수영, 이재호, 이주희, 이희원, 최빈(서기), 한준형, 홍혜림



넝팜(매플릭) 초등학교에서 공연 사역



라후신학교에서 드린 공연 사역

▶ 주요 일정

날수	날짜	주요 활동
1일차	6/28(주일)	치앙마이 도착 · 맥케인 병원 입소
2일차	6/29(월)	CCT 본부 · 선교기관 방문(제1교회·멕길버리·멕코믹) · 라후신학교 입소·공연
3일차	6/30(화)	치앙마이 조별 탐방(문화 체험·대학생 인터뷰) · 조별 발표
4일차	7/1(수)	치앙라이 넝팜마을 전도·심방 · 문화·공연사역 · 축복 기숙사 교제
5일차	7/2(목)	매플릭 초등학교 어린이·체육·문화 사역 · 엘림 허팍 체육대회·공연
6~7일차	7/3~4(금~토)	커피농장·청년 자립 카페 → 출국 · 7/4 새벽 귀국



커피농장 방문



라후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치앙마이 탐방



멕케인 병원에서



엘림 허팍 학생들과 함께

“선교를 마치며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단기선교팀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고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가 저희를 지키고 이끄신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태국은 불교가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집집마다 작은 사원을 둘 만큼 우상숭배가 깊이 자리 잡고 있어, 기독교는 그다지 매력도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지 200년이 넘었지만 태국의 기독교 인구는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을 만큼, 복음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척박한 땅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소수부족을 통해서였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곳은 21노회가 돌보고 있는 라후족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고 계셨습니다. 이어 치앙라이에서는 엘림 허팍의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잊을 수 없는 곳은 매수웨이에 있는 넝팜 초등학교였습니다. 국공립학교여서 기독교가 자리 잡기 어려운 환경인데도, 그곳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이러합니다. 요즘 태국은 아이를 낳지 않는 추세라, 학생이 줄면서 학교들이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넝팜 초등학교 학생의 99%가 ‘허팍’ 출신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허팍은 오래 전부터 기독교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기 위해 세운 기숙사 같은 공동체입니다. 결국 이 아이들이 없으면 학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과거 허팍 출신이었던 한 여자 영어 선생님이 용기를 내어, “이곳에서 매주 금요일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결심하셨고, 그 예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모습을 통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자리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솟아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두 눈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상숭배가 깊은 태국 땅에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이 전해지도록, 그리고 그 땅에서 묵묵히 복음을 지켜 가는 라후족과 엘림 허팍, 넝팜 초등학교의 아이들과 공동체,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만난 작은 씨앗들이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자라가도록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를 보내 주시고 지켜 주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조창우 전도사



바탕가스 시공원 버스킹(필리핀)

♥ 선교를 마친 후 소감 한 마디!

필리핀팀 (17명)

* 강희수: 사랑을 전하러 갔지만 오히려 더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심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김경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었으면 합니다
* 김연후: 제가 받기에 과분한 사랑을 받고, 사랑받는 법을 배운 거 같습니다.
* 김예나: 저에게 선교란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이들, 현지 청년들, 현지 집사님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을 통해 직접적인 사랑을 보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원: 많은 사랑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일상에서도 선교지에서의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 삶에서의 진짜 선교를 잘 해나가야겠습니다!
* 민다은: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입니다. 그 사랑이 고이지 않게 흘리는 우리가 되길.

* 박혜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작은 일도 큰 은혜가 됨을 직접 경험한 선교였다.
* 성유정: 내 안에 무뎌진 감사를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 새 힘을 얻고 또 다시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
* 성해누리: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걸 직접 보고 경험한 시간들었습니다. 이제, 삶 속에서 흘려보내겠습니다!
* 육기돈: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소중하고 행복한 선교였습니다!!
* 윤현종: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 정영균: 선교는 살아가는 삶입니다.
* 조민경: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시간들. 예수님은 살아 있는 소망이십니다.
* 최승렬: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종을 배운 선교였습니다.
* 홍진희: 사랑을 전하러 갔지만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 황보예원: 현지에서 보고 느낀 것을 내 삶에 적용하여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 황보재윤: 배움, 기쁨, 감사가 넘치는 선교였습니다.

태국팀(17명)

* 구자현: 다시 배우는 하나님 사랑!
* 김민성: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떠난 선교였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돌아온 선교였습니다.
* 김민준: 함께함의 소중함을 느낀 선교였습니다.
* 김보성: 내가 원하는 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선교를 알게 하심에 감사, 중보기도팀을 통해 누군가는 조용히 우릴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에 감사!

* 김승규: 예수님의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닿을 수 있기를.
* 김예랑: 사랑을 주러 가서 오히려 사랑으로 채움 받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랑을 또 어떻게 흘려보낼지 배우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값지고 행복했습니다!
* 김태양: 내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아닌 사랑이 채워지고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과 겸손을 배우고 느끼는 좋은 순간들이었습니다!
* 송하람: 보고, 듣고, 체험한 선교는 막연했던 기도를 열방을 향한 구체적인 기도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각 땅에 이루실 뜻과 계획이 기대됩니다!!
* 유승: 선교는 한국과 먼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습니다.
* 윤주원: 하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 이수영: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태국 땅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보다 앞선 것 없음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 이재호: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이주희: 제게 선교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피부로 느끼며 제게 선교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희원: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하나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최빈: 순수한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선교는 역시 사랑입니다.
* 한준형: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님의 나를 향한, 선교지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너무나 느낄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막연한 기도가 아닌 선교지를 향한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됨에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홍혜림: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태국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역자 (2명)

* 박주안 목사(필리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예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 조창우 전도사(태국): 이번 선교를 통해 세상이 무너져도 솟아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내가 좋아하는 축구



박시준 성도
(유년부 2학년)

저는 6살 때 축구를 처음 배웠어요. 형이 먼저 축구를 배워서 저도 같이 배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형을 따라서 축구를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재미있어서 계속 배우게 되었어요. 저는 축구 경기를 할 때 재미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특히 드리블을 해서 상대 팀 친구를 지나갈 때 제일 재미있어요. 축구를 잘하려면 매일 연습을 해야 하는데, 요즘은 힘들 때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연습하기 싫을 때도 있고, 공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축구를 잘하고 싶어서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축구를 계속하면서 달라진 것이 있어요. 축구대회가 주일에 있을 때는 교회에 가지 못할 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대회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가족들과 새벽예배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는 못 가지만 가족들과 교회에서처럼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도 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제가 축구를 재미있게 하라고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응원해 주신다고 생각하니 축구를 더 잘하고 싶어요. 어시스트도 잘하고 싶고, 골도 조금씩 넣고 싶어요. 그리고 수비를 할 때 상대 선수에게 쉽게 제쳐지지 않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열심히 연습해서 공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잘 따라가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저는 축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해요. 제가 축구를 할 때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연습하기 싫을 때도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세요. 경기를 할 때 화내거나 짜증 내지 않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축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축구를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매일 열심히 연습해서 지금보다 더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축구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소그룹 공동체와 성경공부에 대한 소회



이안나 집사
(드림2구역)

저는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적 고향인 교회의 품에서 자라온, 그리고 올해로 마흔을 맞이한 40대 여성 교인입니다. 그간 교회를 섬기며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왔지만, 요즘처럼 교회의 든든한 허리이자 중심 세대인 30대, 40대, 50대의 영적 성장에 대해 깊이 고민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게는 단순한 예배 참여를 넘어, 삶의 다양한 무게를 함께 나누고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소공동체'가 더욱 간절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과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일터와 육아 속에서 가치관의 중심을 잡으려는 30대, 인생의 전환점에서 삶의 목적을 다시 질문하는 40대, 그리고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50대까지, 우리 중심 세대의 갈급함은 세상의 답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세대별 이슈와 고민을 온전히 해석하고 이겨낼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도들이 소공동체로 모여 함께 공부하고 나눌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고, 우리 삶에서 실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영적인 선포의 자리라면, 소공동체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성경공부를 통해 세밀하게 배우고 조율하고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각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성경을 함께 배우고, 그 말씀에 비추어 서로의 삶을 진솔하게 나눌 때,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소속감과 진정한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말씀 배우는 성경공부의 현장이 되고, 성경공부는 서로 공감하는 소공동체 안에서 더욱 깊어지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의 소그룹을 지탱해온 수많은 리더분들의 눈물 어린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함을 잘 알고 있으며 늘 가슴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하는 시대 속에서, 이제는 특정 리더 한 사람의 희생에만 의존하기보다 모두가 지치지 않고 함께 지속할 수 있는 소그룹 운영 모델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조심스러운 바람이 생깁니다.

리더 한 명에게 과도한 역할이 집중되는 구조를 조금만 보완하여 '함께 배우고 함께 세워져 가는 소그룹 성경공부'로 체질을 바꾸어 나간다면, 리더의 부담은 줄어들고 소공동체는 더욱 생동감 넘치는 말씀과 신앙 교제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건강한 동력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 소그룹의 운영 방식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고 성경공부 소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살리기 위해 교역자 중심의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기대해봅니다. 성경의 명확한 말씀과 신앙의 기초 체력을 바르게 다지는 일은 교역자분들께서 소그룹을 위해 이끌어 주실 때 가장 든든할 것입니다. 깊이 있는 말씀의 꼴을 통해 성도들이 소그룹 안에서 본질적인 영적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그룹 안에서 리더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이 부여되기보다, 구성원 모두가 작은 역할이라도 나누어 참여하는 소그룹 구성원 중심의 성경공부 구조로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말씀의 기초가 든든한 분들을 멘토로 세우고, 이들이 소공동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연대하도록 도울 수 있는 양육 프로그램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시대를 분별하고 양떼의 형편을 세심히 살피는 영적 민감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러한 성경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현실과 영적 요구가 무엇인지 더 귀 기울이고 선제적으로 살펴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 필요에 발맞추어 현재의 공동체 운영과 성경공부 방식을 다듬어 가고, 성도들의 영적 요구에 귀 기울여 소공동체 개선과 양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에서도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동의 사랑의 마당에서 넘치는 은혜 속에서 자란 교인으로서, 우리 연동교회가 시대의 파도 속에서도 성도들의 삶을 든든히 붙잡아주고 새로운 신앙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아름다운 방주가 되기를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기억하라



김경민 성도
(HI청년공동체)

평생을 기억하고 있다 생각하며 오만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힘든 순간이 아직까지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기억이 납니다. 이 기억들은 나에게 견디기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 내가 기억하고 있던 어려웠던 순간들을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고선 '나는 이런 일을 겪었으니 지금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라며 혼자 합리화하며 회피하게 만듭니다. 마치 이렇게 도망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요.

이번 필리핀 선교를 가서 깨달은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 하면 저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전에 다른 교회 공동체에서 스무 살의 나이에 우간다로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목사님께 '일 때문에 공동체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필리핀 선교 중에 저는 항상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일차부터 9일차까지 저에게 선교는 선교사님이 강조하신 '기쁨'이라는 키워드와는 많이 벗어난 일종의 업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9일차 팀원들과 수영장에서 잠시 휴식 중에 그늘에 앉아 저희 선교 팀원들이 서로 장난치며 하나 되어 노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 안에 기쁨이 가득 참과 동시에 내가 스무 살에 들었던, '공동체와 하나 되지 못한다'라며 저를 옥죄던 그 말이 선교에서 팀원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그동안의 나의 모습으로 보이며 진심으로 나를 위한 말이었음을 깨닫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이같이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기억'이라는 단어는 단지 언제 어디서 어떤 것을 했다 정도의 기억이 아닌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고 바꾸셨는지 깨닫고 나의 삶에서 살아내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로 내 인생의 출애굽과 같던 시절은 다 오늘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중에 있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사랑과 애정



김형규 공로안수
집사(중구구역)

만해(萬海) 한용운의 '사랑하는 까닭' 이라는 시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끈끈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기다림의 이유가 평범 그 이상, 시간 그 이상, 상식 그 이상의 차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일반적인 사랑의 이유는 당신이 아름답고 당신이 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젊고 발랄한 아가씨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자연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이것은 행복한 일일 수 있으나 찬양할 것까지는 없고, 흔한 일일 수 있겠으나 흠모할 만한 것은 못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웨딩마치가 5년, 10년도 채 못 가서 끊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기 위해 14년이란 긴 세월을 노동해서 신부 값을 치렀는데도 그 세월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도 계산이 빨랐던 야곱이지만 사랑에는 백치같이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내의 백발까지도, 허옇게 서리 내린 남편의 면류관까지 온통 사랑할 줄 아는 자만이 사랑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일반적인 사랑의 이유는 당신이 나를 향해 미소 짓고 당신의 얼굴에 미소의 꽃이 피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웃는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웃는 얼굴이야 사랑할 법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 세상 살자면 어찌 미소의 꽃만 만발하겠습니까? 괴로워 한숨 짓고 노여워 벌컥하고 역겨워 외면하고 더러는 짜증나 찡그리지 않겠습니까? 지치고 병들어 눈물 짓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보! 당신이 내 젊은 미소뿐 아니라 내 눈물까지도 기꺼이 사랑해 주기에 나는 오늘까지 당신만을 그리워한답니다."
이렇게 피차 부부의 진한 애정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일반적인 사랑의 이유는 당신이 건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보드랍고 매끄럽던 내 얼굴에 왜 주름살이 생겨요. 늙고 병들고 죽기까지 당신 때문이라면 나는 싫지 않아요."
정말로 유정한 사랑이라면 "나는 당신의 건강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보다 깊은 것은 잠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사랑은 주님의 사랑처럼 까닭이 없어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한여름보다 더 뜨겁게, 섬김과 선교로 달린 HI청년들

| 러브릿지온





5월 16일(토), 6월 13일(토)에는 종로 인근 지역 어르신들께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러브릿지온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생필품과 먹거리를 나누어 드리며,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모두가 웃는 얼굴로 어르신들의 안부를 여쭙고 축복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5월에는 1남선교회, 6월에는 2여전도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더욱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 금요기도회



5월 22일과 6월 12일 저녁 7시 30분, 가나의집 아가페홀에서 금요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한 마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부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써,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선교 바자회



6월 14일(일) 교회 마당과 오병이어의 집에서 선교 자금 마련을 위한 선교 바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파송되는 선교팀과, 보내는 선교사인 기도짝, 제직분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섬김의 손길을 더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바자회 물품을 나누며, 선교지에서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 풋살 교제



5월 25일(월)에는 중랑 물재생센터 축구장에서 영락교회와 축구 친선 경기를 진행했고, 6월 6일(토)에는 성북 토모 블랙피치에서 연동청년들끼리 풋살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다치지 않고 땀 흘리며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기부런



6월 20일(토)에는 월드비전에서 주최한 기부 마라톤에 19명의 청년들이 참가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식수위생사업을 위해 참가비가 기부되는 형식의 마라톤으로, 비가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참가한 모든 청년들이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 중보기도의 밤

태국과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각각 2일, 3일 남겨둔 지난 6월 26일(금), 본당에서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의 밤에 청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팀이 현지에서 전하는 복음을 위해, 한국에서 기도하는 기도짝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길 기도하며 공동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 리더모임



5월 16일과 30일, 6월 13일, 격주 토요일마다 가나의집 아가페홀에서 셀 리더와 각 팀장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7일(토)에는 상반기 리더 모임 종강으로, 식사 교제를 통해 그동안 수고해준 모든 리더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하반기 사역 가운데도 공동체를 이끄는 모든 리더들에게 성령의 힘과 지혜가 더하여지길 기도합니다.

| 해외 단기선교





단기선교팀이 '우리의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 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6월 28일(일)부터 7월 4일(토)까지 태국의 치앙마이와 치앙라이로, 6월 29일(월)부터 7월 9일(목)까지 필리핀 바탕가스로 떠나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청년부 모든 공동체가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일상 속에서의 선교를 잘 해나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물을 얻기 위해 아이들이 걷는 6km,
우리가 대신 걷자! 6K 월드비전런



6월 20일(토), HI청년공동체는 월드비전이 주최한 마라톤 행사 '6K 월드비전런'에 참가했습니다. 이 행사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이 물을 얻기 위해 매일 걷는 평균 거리인 6km를 함께 달리고 참가비 전액을 식수 지원 사업에 기부하는 캠페인입니다.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 연동교회 주변을 30바퀴 돌아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걸을 수 있을까?' 이 행사를 처음 접했을 때 HI청년공동체 봉사팀장 송하람 자매는 이를 청년들의 관심사인 달리기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의미 있는 행사에서 HI청년공동체가 함께 달리는 것을 넘어, 몸으로 공감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경험을 만들어보고자 단체 참가를 기획했다고 전합니다.



비 준비하시니

행사 당일, 새벽부터 내린 많은 비에 걱정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보다는 시원한 비가 오히려 좋다는 긍정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빗속에서도 서로를 응원하며 달리는 청년들의 모습은 마치 웨이홈의 CCM <달리기> 중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라는 가사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그 자체를 떠오르게 만들었다고 봉사팀장은 전했습니다. 선교 준비 기간이기에 체력과 안전에 대한 염려도 있었지만 모두가 부상 없이 완주하고 일정을 무사히 마치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몸으로 삶에 공감하다



이번 행사에는 총 30명의 청년들이 함께했습니다. 그 중 19명의 청년들이 6km를 완주했고, 11명의 청년들은 후원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월드비전런을 통해 청년들은 마라톤 완주를 넘어, 누군가의 삶에 공감하고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의 관심사가 봉사로 이어지고 서로 응원하며 함께 달렸던 이 경험은 공동체 안에서 의미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 남다은 기자

♥ 참가자 명단(6km 완주) - 강희수, 김민성, 김보성, 박주안, 서유니, 서장훈, 서호석, 송하람, 성유정, 안희승, 오민택, 유하준, 윤주원, 윤현종, 이강욱, 이승민, 조형준, 최빈, 홍혜림

♥ 후원 참여 - 김동영, 김동현, 김민준, 김예나, 김예랑, 김지원, 박예송, 장서영, 조민경, 한지은, 황보예원



최빈 청년

[완주자 소감]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달린 6km의 기적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올해 단기선교를 가게 되면서, 본격적인 선교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체력을 기르고 운동도 할 겸 일석이조의 기회로 월드비전에서 진행하는 기부 마라톤을 신청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신청했을 때의 다짐과 달리 연습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인생 첫 마라톤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대회 당일 아침까지도 비가 쏟아져서 과연 끝까지 달릴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는데, 막상 달리기를 시작하니 걱정이 무색할 만큼 오히려 날이 덥지 않고 시원했습니다. 다행히 뛸 때는 빗줄기도 점점 약해져서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모든 상황이 세심하게 예비되어 있다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마라톤이 더욱 뜻깊었던 건 '6km'라는 거리가 가진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6km는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이 마실 물을 얻기 위해 매일 걸어야 하는 평균 거리입니다. 배번호에 붙은 한 아이의 얼굴과 이름을 보며, 이 달리기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매일 버텨내야 하는 삶의 무게라는 사실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 작은 아이들을 생각하니, 숨이 차오르는 순간에도 한 걸음 더 내딛을 힘이 생겼습니다.

첫 도전이라 낯설기도 했지만, 코스 곳곳에서 북과 드럼을 치며 활기차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과 환한 미소로 하이파이브를 건네던 분들 덕분에 마라톤이라는 운동이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이청년공동체가 곁에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끌어주며 함께 발을 맞춰 뛴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완주가 가능했고, 먼저 도착한 청년들이 결승선 근처에서 환호하며 맞이해 줄 때는 말로 다 못 할 든든함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저 체력을 기르겠다는 단순한 계기로 시작하였지만, 막상 완주하고 나니 몸도 마음도 부쩍 단단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때 얻은 튼튼한 체력과 공동체의 사랑 덕분에 얼마 전 다녀온 단기선교 일정도 지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거리였지만 지구 반대편 아이들의 삶을 가슴에 품고, 공동체와 함께 달리는 기쁨을 배운 소중한 마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운드 위의 예배자, 이재성 선수



2026 북중미 월드컵의 함성이 한여름의 열기보다 더 뜨겁게 전 세계를 달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한민국 대표팀의 여정은 조별 리그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아쉬움 속에 월드컵을 마친 대한민국 축구의 '인성 히어로(Unsung Hero)' 이재성 선수의 삶을 통해 '패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월드컵은 우리 모두에게 짙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대표팀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체코를 2-1로 꺾는 역전승으로 출발했지만, 이어진 멕시코전과 남아프리카공화국전에서 잇달아 0-1로 패하며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2015년 처음 태극마크를 단 이후 A매치 100경기 고지에 오르기까지 10년 넘게 대표팀의 중원을 지켜온 베테랑입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대신 공이 없는 곳을 먼저 뛰며 동료의 길을 열어주는 '살림꾼'으로 활약해왔고, 이번 대회는 그의 세 번째 월드컵 무대였습니다. 1, 2차전에 선발로 나섰던 그는 남아공과의 최종전에서 그라운드를 밟지 못한 채 벤치에서 팀의 탈락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조별리그 탈락의 밤이 지나고 그가 자신의 SNS에 남긴 글은 승패를 넘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먼저, 월드컵 기간 동안 저와 대표팀을 향해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승리의 기쁨이 아닌 패배의 아픔을 전해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하루라도 더 오래 이 축제를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큰 욕심이었던 걸까요. 상상하지 못했던 결말이라 지금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이 오리라 믿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od Makes No Mistakes, and GLORY TO GOD!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흔들리는 순간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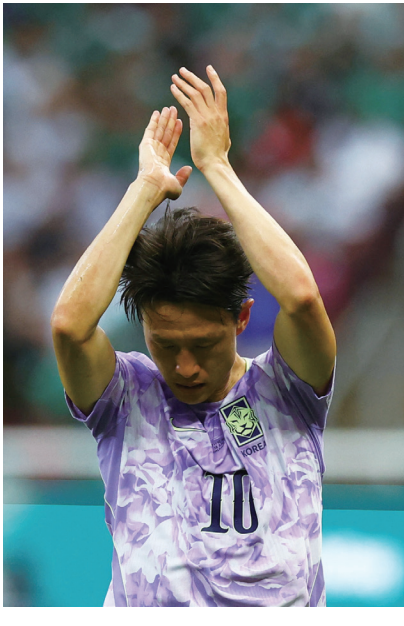


오한빛 목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벤치의 시간에 원망 대신 터져나온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고백이야말로 그가 가진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무신론자였다고 말하던 그를 위해 둘째 형수는 오랜 세월 중보기도를 드렸고, 대표팀 동료 김신욱 선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2018년의 어느 날,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마음 깊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로마서 10:17)는 말씀 그대로,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이후 삶 전체가 변화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변화된 그에게는 '그라운드 위의 예배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뛰는 동안에도 경기가 없는 날이면 주일예배와 수요예배 자리를 지켰고, 자신의 블로그에는 설교 노트와 성경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냐는 질문에는 "고민하고 꺼렸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제 일상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10개월간 이어지는 시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가 꼽은 멘탈 관리의 비결 역시 신앙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분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기에 그 은혜로 버티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벤치의 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는 믿음이 패배의 밤에 써 내려간 그의 고백에 큰 울림을 더합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말'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시간이 있고, 좌절의 계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28)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패배와 눈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경기의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닐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월드컵의 함성이 이어지는 이때, 삶의 그라운드에서 흔들리는 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패배의 밤에 써 내려간 이재성 선수의 고백을 함께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승리의 함성 속에서도, 아쉬움의 눈물 속에서도 'GLORY TO GOD'을 외치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연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디지털 시대, 기독교인의 올바른 유튜브 활용 가이드
미디어 홍수 속에서 분별력 키우기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유튜브가 차지하는 자리는 생각보다 큽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넘버즈 288호, 2025)에 따르면 교회 출석 성도의 하루 평균 유튜브 이용 시간은 113분이며, 기독교인의 종교 유튜브 이용률은 65%로 불교인(40%)과 가톨릭 신자(31%)를 크게 앞섭니다.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는 요인도 달라져, '출석 교회 예배·설교'라는 응답은 2012년 64%에서 2023년 28%로 준 반면 '미디어'는 1%에서 19%로 급증했습니다(한목협). 좋든 싫든 유튜브는 이미 우리 신앙의 식탁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탁에 어떤 음식이 오를지를 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이란 '내가 본 것을 기준으로 다음 볼 것을 골라주는 자동 추천 장치'입니다. 편리해 보이지만 그 목적은 진리 전달이 아니라 체류 시간 연장, 곧 광고 수익입니다. 그래서 자극적일수록, 치우칠수록 더 많이 추천됩니다. 이런 알고리즘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유튜브 활용에 왜 분별력이 필요한가요?

분별이 필요한 이유는 걸러내야 할 것들이 실제로 우리 화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양의 옷을 입은 이리"(마 7:15)는 오늘날 유튜브 채널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 감시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신천지는 '천지TV' 등을 운영하며 신도가 '기독교 브이로그' 유튜버로 위장한 사례까지 확인됐고, 하나님의교회는 'NEWSONG STREAMING' 같은 찬양 형태 채널을, 안식교 계열은 찬양 커버 채널('3rdsound')을 운영하며, 전능신교는 '기독교 영화' 검색 시 상위 노출되는 영화 콘텐츠로 접근합니다.

이단으로 규정되지 않았어도 닮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기성 교회를 무조건 비판하며 성도와 목자를 이간하고, 요한계시록의 '숨겨진 비밀'을 자기만 푼다고 주장하며, 복음 아닌 이념과 진영 논리로 편을 가르고, 댓글로 '무료 성경공부'와 '1:1 대화'를 권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계대윤 목사

이렇게 스며드는 미혹들,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분별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① 채널 정보에서 설교자의 실명과 소속 교단을 확인하십시오. 빛의 자녀는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요 3:21).

②채널명 뒤에 '이단'을 붙여 30초만 검색해 보십시오. 예장통합 총회의 이단 규정 목록과 현대종교 등이 기준이 됩니다.

③ 의심 영상을 봤다면 '관심 없음'과 '채널 추천 안 함'을 누르고 시청 기록에서 지우십시오.

④ 애매하면 교역자에게 물으십시오. 베뢰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조차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행 17:11)했습니다. 물어보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는 건강한 사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구독함부터 정돈하십시오. 지금 구독 목록을 열어 출처가 불분명한 채널은 정리하고, 검증된 채널로 채우는 것입니다. 출석 교회인 연동교회 채널을 기본으로, 위러브(WELOVE), 마커스워십, 어노인팅, 제이어스(J-US), 비컴퍼니 같은 건강한 찬양 채널이 좋은 출발점입니다. 알고리즘은 구독함을 따라 움직이므로, 구독함이 건강하면 추천 영상도 건강해집니다.

둘째, 들었으면 하나라도 살아내십시오. 사지 않고 구경만 하는 아이쇼핑(Eye Shopping)처럼, 듣기만 하고 살아내지 않는 '이어쇼핑(Ear Shopping)'의 신앙이 있습니다. 은혜를 소비만 할 뿐 삶이 그대로라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마 7:26)과 같습니다. 영상 하나를 봤다면 그날 적용할 한 가지를 메모하고, 가정예배나 구역 모임에서 나눠 보십시오. 유튜브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고사항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해석은 언제나 텍스트에서 시작하여 컨텍스트, 곧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려앉을 자리는 화면 속이 아니라 나의 가정, 일터, 교회 공동체입니다.

SNS를 사용하는 연동교인들께 한말씀 부탁합니다.

연동의 가족 여러분, 유튜브를 끊자는 것이 아니라 주식(主食)과 간식(間食)을 바꾸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도들 스스로도 설교만큼은 유튜브(7%)보다 현장(74%)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얼굴을 마주하는 공동체, 스스로 펴서 읽는 성경이 우리의 주식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요 10:27). 수많은 목소리 가운데서도 선한 목자의 음성만은 놓치지 않는 든든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할 한 마디!

"알고리즘은 우리의 취향을 알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아십니다!"

영혼을 깨우는 청아한 울림, '토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영혼을 깨우는 예사롭지 않은 모임

'토브(TOV)'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교회 한편에서는 청아하고 따뜻한 선율이 흐릅니다. 사람의 숨결을 따라 만들어내는 이 소리는 소그룹 토브의 팬플룻 연주입니다. '토브'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때 쓰인 히브리어로, '좋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임은 음악 전공자들이 아닌, 팬플룻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정금실 장로, 최은숙1 집사가 "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무라는 자연의 재료로 만들어진 팬플룻은 사람의 호흡을 그대로 담아내며,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무거운 영혼에는 다시 일어설 힘을 전합니다.

코로나를 지나, 세대를 잇는 하나의 호흡

토브는 2019년 말 시작되었지만, 곧 코로나19로 활동이 중단되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팬플룻에 대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고, 코로나가 잦아들 무렵, "다시 시작하자"는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2024년, 교회의 소그룹 활성화 흐름 속에서 토브는 정식 모임으로 자리 잡았고, 올해 3기 회원이 들어와 현재 1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의 호흡으로 연주한다는 점이 이 모임의 큰 자랑입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토요일 아침, 새벽기도회 후에 함께 모여 모임 전까지 식사와 교제를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며 팬플룻 악기처럼 따뜻한 울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낙오자는 없다” 함께 배우는 기쁨

팬플룻은 호흡과 입술 모양, 각도 조절이 중요한 악기로, 익히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금실 장로가 교육을 이끌고, 최은숙1 집사(총무)와 고미경 권사가 기초와 보조 지도를 맡아 초보자도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매주 2시간의 연습은 기본기 익히기와 개인 연습, 합주로 이어지며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실력이 쌓여갑니다. “기초 다지는 시기만 버텨주시면 저희 모임은 절대 아웃시키지 않아요.” 이 넉넉함 덕에 연 2회 새벽기도회 특주와 상반기에는 실력향상발표회, 하반기에는 버스킹이 정기적인 일정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력향상발표회와 버스킹 경비는 월회비 2만 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담장을 넘어, 위로를 전하는 찬양

작년 가을, 교회 마당에서 열린 버스킹 연주는 우연히 지나던 사람이 촬영해 유튜브에 소개되었고, 김주용 위임목사를 통해 이 영상이 토브로 전해진 훈훈한 일화도 있습니다. 지난 5월 한강공원으로 나들이 나가 팬플룻을 연주했을 때는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귀 기울여준 뜻깊은 경험도 했습니다. 이 경험들은 서툴고 작은 연주라도 세상에 위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실력을 닦아 대중에게 친숙한 곡으로 교회 담장 너머까지 쉼을 전하는 것이 토브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랑할 수 있는, 어디서든 초대받는 소그룹이 되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토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대나무 관대에서 울리는 하늘의 소리에 성도님의 호흡을 더해 보시면 어떨까요?

/ 박현미 편집장

▶모임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 11시

▶장소: 교육관 414호(찬양대실)

▶회비: 월 2만 원

▶가입 및 문의: 교사 정금실 장로, 총무 최은숙1 집사(010-7488-5422)



토브 한강공원 나들이에서 연주(2026.5)

토브 버스킹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연주(2025.11)

95년 역사를 가진 연동교회 여름성경학교



더게일홀에는 132년 된 연동교회의 유물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작은 전시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 '연못골'은 연동역사관(관장 이정민 장로)에서 준비해 더게일홀에 전시하는 연동교회의 소중한 유물들을 지면에서도 볼 수 있도록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선대들의 신앙의 유산들을 함께 살펴보며 후대에 우리가 남길 유산들에 대해 고찰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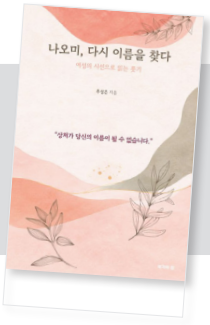
연동교회 제1회 하기아동성경학교(교장 이대위 집사)는 1931년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본 교회에서 진행되었다. 학생 507명(당시 주일 평균 출석인원 378명), 교사 21명이 참석했다. 제3회 하기아동성경학교(교장 진석오 장로)는 1933년 8월 7일부터 18일까지 경신학교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이때 하기성경학교는 동네 꼬마들의 부러움과 구경거리여서 많은 어린이들이 몰려와 마음껏 공부하고 뛰어 놀았다. 1931년 12월 8일 경기노회 회의록에는 연동교회 하기아동성경학교는 기록적인 인원이 모인, 경기노회에서 가장 양호한 성경학교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966년부터 유치부와 아동부는 여름성경학교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중, 고등부는 여름수양회라는 이름으로 서울 인근의 장소에서 수련회를 진행했다.

수련회의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성경공부와 찬양, 동화, 율동, 공작, 게임, 친교, 고학년은 성경공부, 성경암송, 성경고사와 강의, 토의, 동화, 찬양, 율동, 미술, 연극, 영화감상, 퀴즈, 백일장, 봉사활동과 캠프파이어 등 다양했다.

2026년 현재, 주일학교 각 부서는 95년의 역사를 가진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느라 한창이다. 95년 전, 온 동네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되었던 하기아동성경학교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 이혜석 권사(역사위원회 부위원장)



나오미, 다시 이름을 찾다
여성의 시선으로 읽는 룻기

추성은 지음/ 작가의 집/ 2026.03

내면의 위선과 세상의 고통, 그 근원을 추적하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익숙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함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아픔과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룻기의 나오미는 바로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깊은 상실 속에서 자신을 '나오미(기쁨)'가 아니라 '마라(쓰라림)'라고 불러 달라고 말했던 그녀의 고백은, 인간의 연약함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시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속의 역사 안에서 그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나오미, 다시 이름을 찾다』는 이러한 나오미의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붙드시고 회복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이끌어 주는 책입니다. 익숙하게 읽어 왔던 룻기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고,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과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획이 무너지고, 기대가 좌절되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나오미의 이야기는 당장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며 가장 좋은 때에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이 책은 특별한 삶의 위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만 필요한 책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온 분들에게는 익숙한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는 기회를, 이제 막 성경을 깊이 읽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룻기를 더욱 풍성하게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이름과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말씀과 함께 이 책을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조유경 기자

스위스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변화 - 김명환 선교사

스위스의 6월은 유난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알프스 산자락에서 산과 빙하가 무너지면서 마을 하나가 사라지는 안타까운 재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스위스 전역에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3학년 학생들 주일 예배에서 성찬식 참여



4학년 학생들이 말씀 낭독하고 성경을 선물로 받음

저희가 사역하는 스위스 개혁교회는 한국 교회와 달리 주일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교역자와 교사도 부족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문화도 매우 약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연령별 신앙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특히 7~9학년 학생들은 '입교(Konfirmation)'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을 거칩니다. 입교는 세례와 함께 신앙의 성숙을 선포하는 예식으로,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섬기는 비르멘스도르프 교회에서는 10년이 넘도록 7~8학년 모임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교인 감소와 목회자 부족으로 더 이상 청소년 사역을 이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권선종 선교사가 장로회를 설득하여 7~8학년 교리교육을 위한 교육사를 채용하게 되었고, 직접 교육과정을 준비하며 학생들과 함께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7~8학년 학생들이 한 조각씩 받은 교회 퍼즐 놀이



권선종 선교사가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 나눔

처음에는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이신이가 학교 친구들을 한국 컵라면으로 초대하며 자연스럽게 교회 모임으로 연결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아이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고, 다음 모임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섬김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 주셨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 가고 계셨습니다.


7~8학년 간식으로 한국 라면을 준비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2025/26년 입교 대상자 27명이 모두 등록하는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상당수가 새롭게 시작한 7~8학년 모임을 통해 교회와 연결된 학생들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점점 형식화되고 문화로만 남아 있는 기독교 신앙을 다시 일깨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기에, 이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모임은 교회 운영회의에서 2년간 시범 운영을 허락받았으며, 앞으로 정식 사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소식은 첫째 아들 이언이가 드디어 입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입교가 청소년이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고 공동체 앞에서 믿음을 선포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큰 선물이나 화려한 축하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평생 가장 귀한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스위스 교회에 부임하면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스위스식 슬라이스 햄 전략'처럼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작은 변화들이 스위스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귀한 열매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비르멘스도르프-애쉬 개혁교회의 7~8학년 사역이 정식 사역으로 자리 잡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임시 대리 목사님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도록.

*김이언·김이신 형제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성장하도록.
늘 기도와 사랑으로 동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올린 '다문화의 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편 133:1)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하나 된 6월 7일(주일) 제2회 "다문화의 날"은 다문화선교팀(팀장 허선미)의 주최로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성도들과 다문화 성도들이 교회 마당에서 함께 어우러져,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 날은 우리의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이 장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는 축복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날이었다. 한국, 중국, 필리핀 형제자매들로 구성된 연동교회 다문화 공동체는 문화축제를 통해 각자의 고유한 색깔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사랑, 긍휼과 이해를 우리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그려냈다.

이번 축제는 성도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하나 되어 예배하고, 전통예술과 음식, 춤, 전통의상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기쁨과 화합, 그리고 축제의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였다. 특히, 각 나라의 전통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은 모두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중국 성도들은 현장에서 직접 만두를 빚고 쪄서 정성껏 대접했으며, 향긋한 차와 달콤한 디저트도 함께 준비했다. 필리핀 성도들은 엠파나다(Empanada, 파이), 푸토(Puto, 찐 쌀떡), 피치피치(Pichi-Pichi, 찐 카사바 케이크)를 정성껏 준비해 성도들과 기쁨으로 나누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필리핀 전통 의상을 직접 입어보며 다른 문화를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선교 예배



팀의 라이브 찬양과 함께 이어진 공동체 춤은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 마음껏 즐기는 시간이 되었고, 서로 다른 문화가 하나의 리듬 속에서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조화와 연합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한국, 중국, 필리핀. 세 나라였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다채로운지를 함께 기뻐하며 축하했다.

이번 다문화 선교 행사축제는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연동교회 공동체를 진정한 다문화 가족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세워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아벨 목사와 박점분 목사는 이번 다문화 선교행사 축제를 위해 헌신한 다문화 공동체 리더들과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전했다./ 필리핀예배공동체

중국어예배반 박점분 목사
WeChat ID : df7135



필리핀예배공동체 아벨 목사
Facebook : Abel Raby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범경은 신학생
(중국어예배반)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허난에서 온 범경은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저를 위해 사랑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8년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어느덧 한국에서 훈련받고 준비한 시간이 8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부터 제 마음 한편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중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그 마음을 품고 한국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때는 그 부르심이 아직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방향은 알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려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연동교회에서 사역 훈련을 받게 하셨고, 그 이후에는 아하선교회를 알게 하셨습니다. 아하선교회에서 개최한 ABC대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원더풀에서 훈련을 받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의 눈을 조금씩 열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단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 주고, 말씀으로 함께 걸어가며,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조금씩 자라 가는 모습을 보는 일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한국에서의 훈련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지나며 제 마음에도 확신이 생겼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그 일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제 삶을 드리고 싶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돌아보면,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배우고 훈련받았던 시간도, 한 영혼을 사랑하며 함께 걸어왔던 경험도 모두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합니다.

저는 7월 20일에 중국 시안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교회 개척을 배우고, 제자훈련 사역을 함께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큰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 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 가도록 돕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 가도록 섬기며, 중국 땅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7월 20일 중국으로 안전하게 귀국하고, 새로운 환경과 사역에 잘 적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2.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일대일 양육을 통해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3.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을 예비해 주시고, 함께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 갈 수 있도록

2026 청소년주일학교
여름사역안내

일정	부서	장소	주제
7월 11일(토), 12일(주일)	영아부	가나의집 3층 영아부실	하나님 사랑, 하이! 하이!
	유아부	가나의집 2층 유아부실	
	유치부	가나의집 2층 유치부실	
7월 24일(금) -26일(주일)	유년부	강화수양관	용서받고 사랑하고 GO GO 대모험
	초등부		
7월 31일(금) -8월 2일(주일)	중등부	강화수양관	주님의 식탁으로 오라
	고등부		LOG-IN :증인의 삶으로 접속하라
8월 6일(목) -8일(토)	주니어 앙상블	대부도 그랑비치 펜션	-



〈 영아부 〉 부장 : 박윤신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5	17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딤후 1:5)	스승의 주일 감사, 말씀집중주일, 반별 나눔
	24	예배하는 가정이에요(행10:2)	성령강림주일 활동, 월례회&기도회
	31	하나님만 믿어요(수 24:15b)	성경학교 강습회 참여(5월 30일, 토), 아빠·엄마 끼리끼리데이
6	7	배를 만들었어요(창 6:22)	임산부 축복기도, 비즐리 태오 가정 영국으로 파송
	14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어요(삼상 17:45)	새친구 환영(박세준), 말씀집중주일, 여름성경학교 준비
	21	나팔과 항아리, 횃불로 이겼어요(삿 7:20)	위임목사 순회예배 및 학부모 간담회.
	28	하나님께 기도했어요(에 4:16)	월례회&기도회, 여름성경학교 준비, 아빠·엄마 끼리끼리데이, 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릴레이 기도
7	5	하나님 사랑 하이!하이!(출 34:6)	7월 생일축하(정설, 한제이), 성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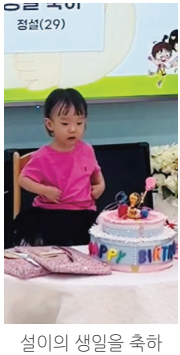
/ 박윤신 부장



비즐리 태오 가정 파송


영아부 학부모 간담회


세준이를 환영합니다.
(새친구 환영)



설이의 생일을 축하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주용 위임목사(위임목사 순회예배)

〈 유아부 〉 부장 : 정윤정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5	17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우리(레16:30)	요리활동
	24	거룩하게 사는 우리(레19:2)	색판 뒤집기 놀이
	31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신6:4~5)	반별 말씀 암송
6	7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시24:1)	생일파티
	14	세상을 돌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약1:15)	여름성경학교 찬양배우기
	21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는 우리(롬8:19)	예수님 꽃이 피었습니다 활동
	28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겔37:17)	반별 말씀 암송
7	5	여름성경학교 주제설교(출34:6)	생일파티

/ 정윤정 부장



요리활동



색판 뒤집기 놀이



생일잔치



예수님 꽃이 피었습니다. 출발~~~



여름성경학교 찬양 배우기

〈 유치부 〉 부장 : 유진희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5	17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우리(레16:30)	4월 가정예배 시상 / 공과활동
	24	거룩하게 사는 우리(레19:2)	말씀 암송잔치 / 재미있는 공과활동
	31	삼청공원 유야숲체험장 야외예배	자연물을 이용한 왕관 만들기 / 영차영자 클라이밍
6	7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시24:1)	생일잔치 / 5월 가정예배 시상
	14	세상을 돌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약1:15)	재미있는 공과활동
	21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는 우리(롬8:19)	하이하이 액자 만들기
	28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겔37:17)	여름성경학교 하이하이 초대장 만들기
7	5	하나님의 사랑 하이! 하이!(출34:6)	복음피자 만들기

/ 최정미 교사



여기가 피자맛집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몸과 마음이 튼튼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볼게요.



여름성경학교에 친구들을 초대해요.^^



너무 재미있었던 야외예배 비눗방울 놀이에 비눗물이 없었던 것은 비밀~~^^

〈 유년부 〉 부장 : 이현승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5	17	하나님 안에서 공경해요(레위기 16:34)	3-2반 헌신예배, 20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24	거룩하게 살아요(레위기 19:2)	21과 하나님 닮기 미션, 거룩을 찾아라
	31	하나님 사랑하기(신명기 6:4-5)	상반기 성경 골든벨
6	7	생명을 소중히 여겨요(시편24:1)	환경기념주일 하나님 세상 지킴이(교회 주변 플로깅), 6월 생일잔치
	14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로(야고보서1:15)	24과 기후위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21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로마서8:22)	2-1반 헌신예배 25과 나부터 실천해요
	28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스겔37:17)	상반기 달란트 잔치 서울시어린이대회(7월 4일) -찬양율동: (동상)남여름, 이주아, 김은우, 이지현, 진현선, 기태현 -성경고사: (은상)최원, (동상)박호준
7	5	성령님이 오셨어요(사도행전2:4)	성례주일 성찬식, 7월 생일잔치, 기도하고 나무 꾸미기(여름성경학교 기도제목 적기)

/ 민병철 교사



성례주일 성찬식


환경기념주일 플로깅



2학년 1반 헌신예배


단기선교 다녀오신 선생님


상반기 달란트 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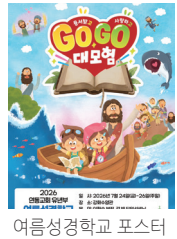
어린이대회 찬양율동 입상자



어린이대회 성경고사 입상자



기도하고 나무(여름성경학교 기도제목)



여름성경학교 포스터
(7/24~26)

〈 초등부 〉 부장 : 김태정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5	17	다시 ON!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레 16:34)	스승의 주일(교사 연합 율동 & 다윗 연합 찬양대)
	24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아요!(레 19:2)	공과활동
	31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요(신 6:4-5)	공과활동
6	7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시 24:1)	환경주일(보드게임 형식으로 공과활동)
	14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래요!(약 1:15)	5,6월 생일자 생일파티, 공과활동
	21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돌보아요!(롬 8:22)	공과활동
	28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겔 37:17)	공과활동
7	5	성령으로 Level Up!(행 2:4)	성례주일(성찬식)

/ 전진석 교사



스승의 주일을 맞아 교사들이 함께 드린 찬양율동



초등부 어린이들이 함께 드린 기쁨의 찬양율동



서울시 어린이대회 전원 수상(기하윤, 이다희,김소연,이지윤,박소은,하도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한 5·6월 생일축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초등부(4학년 김예서)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초등부(4학년 이주영)

〈 어린이부 〉 부장 : 윤종훈 안수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5	17	상반기 AWANA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	Game / 소그룹(성경암송) / 대그룹(예배/시상)
	24	상반기 AWANA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삼상 2:30)	Game / 소그룹(성경암송) / 대그룹(예배/시상)
	31	상반기 AWANA 종강 미니 올림픽	미니 올림픽 / 상반기 시상식 / 단체 피자파티
6	7	어린이부 활동 (AWANA 방학)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삼상 7:3-12)	내가 바로 피구왕! 피구 대회
	14	어린이부 활동 (AWANA 방학)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 오직 하나님”(삼상 8:5)	여름특집 키캡 만들기
	21	어린이부 활동 (AWANA 방학)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삼상 15:22)	여름특집 떡볶이 만들기
	28	어린이부 활동 (AWANA 방학)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삼상 16:7)	여름특집 영상 시청
7	5	어린이부 활동 (AWANA 방학)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삼상 17:47)	여름특집 박성우 선생님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 윤종훈 부장



상반기 AWANA 종강 미니 올림픽



미니올림픽 후 간식시간



키캡 만들기



특별활동



영상 시청

〈 중등부 〉 부장 : 정선아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5	17	희생양(레 16:1-10)	반별 공과 활동, 5월 생일자 축하 등하교 심방 프로젝트, 세례 입교 교육 신청
	24	성령 아자쓰(레 19:1,2,18)	반별 공과 활동 등하교 심방 프로젝트, 세례 입교 교육 신청
	31	일상의 거룩(신 6:4-9)	위임목사 순회 예배, 학부모 간담회 남학생: 보드게임, 여학생: 기독교 가치관 교육
6	7	청지기의 삶 야호(창 1:28, 시 24:1)	환경 퀴즈쇼 '나는야 그린스칸', 세례 입교 교육 신청, 등하교 심방 프로그램
	14	욕심 멈춰!(약 1:12-15)	반별 바자회 음식 나눔, 6월 생일 축하, 환경 퀴즈쇼 시상식 세례 입교 교육 시작, 등하교 심방 프로그램
	21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법(롬 8:19-26)	반별 공과모임 등하교 심방 프로그램, 세례 입교 교육
	28	퀴즈 좋아(겔 37:15-17)	1학기 동안 배웠던 성경 말씀 퀴즈, 세례 입교 교육
7	5	성령이 임하시면(행 2:1-4)	찬양팀 찬양대원 합동 수련회(7월 4일-5일) 성례주일 성찬식 여름수련회 광고(7월 31일-8월 2일)

/ 박성윤 부감



학부모 초청 김주용 위임목사 순회예배





찬양팀 찬양대원 합동 수련회 모습



등하교 심방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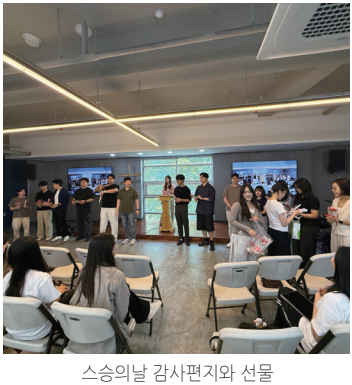


반별 아웃팅 모습

〈 고등부 〉 부장 : 유성욱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5	10	이번 생에 부모는 처음이라(엡6:1~3)	학년주관예배-3학년, 교사월례회(9일), 찬양팀 아웃팅(9일,토)-뚝섬한강공원
	17	거침없이 이불킥(레16:20~34)	학년주관예배-2학년, 스승의 주일-학생회 감사 선물/롤링페이퍼 증정 및 선생님의 어린시절 사진 퀴즈
	24	"너답게, 나답게, 거룩하게"(레19:1~18)	봄 야외예배(반별야외예배)-함께 예배하고, 참여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며 공동체성을 세움
	31	급할 때만 찾아서 죄송합니다만(신6:1~9)	학년주관예배-1학년
6	7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시21:1~10)	6/3(수) 교사리트릿- 서울대공원캠핑장 환경주일 활동 - Green 연동, 초록색 발걸음을 그리다(플로깅)
	14	남 탓하세요(약1:12~18)	안하영 선생님 환영
	21	미래가 현재에게(롬8:19-25)	1. 친구, 이웃, 열방, 피조물을 위한 중보기도 2. 해외단기선교를 위한 중보기도(태국, 필리핀, 캐나다)
	28	이불 밖은 위험해(겔37:15~23)	27(토) 교사월례회-여름수련회 준비
7	5	공부해서 남 주나(행2:1~4)	성찬식, 기독교 가치관 교육-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 이승원 부감



스승의날 감사편지와 선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야외예배(1학년-여의도 한강공원)



야외예배(2학년 1반-을지로)



야외예배(2학년 2반-청계천)



야외예배(3학년-정릉)



해외단기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제33회 서울시 어린이 종합대회



제33회 서울시 어린이종합대회가 7월 4일(토) 장석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개회 예배는 김태은 집사(서울시교회학교아동부연합회 회장)의 인도로 함명희 권사(후원회장)의 기도, 이미숙 목사(총회 아동부 지도)의 '우리의 자랑, 너희의 자랑'(고린도후서 1:14)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이날 대회는 5월 9일(토) 약수교회에서 열렸던 제65회 서울노회 어린이 교육대회에서 금상과 은상 수상자가 참가하게 되었다. 연동교회는 성경고사와 찬양율동 종목에 14명이 참가하여 전원이 수상하는 감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 중 찬양율동 소년부(5·6학년) 금상 수상자 4명에게는 CBS 사장상과 부상이 수여되었다. 참가자 14명 중 금상과 은상 수상자인 최원(성경고사 3학년) 어린이와 김소연·이지윤·박소은·하도희 어린이(찬양율동 5·6학년)는 8월 4일(화)대구 충성교회(대구시 달서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35회 전국어린이대회에 서울시 교회학교아동부연합회(강북협의회)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전국어린이대회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서울시 어린이종합대회의 참가자 명단과 수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양진실 기자

종목	학년	이름
성경고사	유년부(3학년)	최 원(은), 박호준(동)
찬양율동	유년부(1·2학년)	남여름, 이주아, 김은우, 이지현(동)
	초등부(3·4학년)	진현선, 기태현, 기하윤, 이다희(동)
	소년부(5·6학년)	김소연, 이지윤, 박소은, 하도희(금)

노환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선포의 기도

최근 우리 연동교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환과 질병으로 병상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교우들의 소식을 자주 마주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것을 넘어 영적 군사로서 기도의 무릎을 꿇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 주일을 넘어 주중의 삶의 자리-가정, 일터, 이웃-에서도 아픈 이들을 향해 치유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 받는 성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온 교회가 일상 속에서 한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환우들과 어르신들은 영적 연대감 속에서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호부터 '연못골'에서는 매 호 새로운 기도 제목을 정하고 성도들과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중보기도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 임재철 기자, 감수: 계대윤 목사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병중에 있거나 연약한 교우들과 가족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소리 내어 선포합시다.

1. 여호와 라파의 치료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출애굽기 15:26)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연동교회의 모든 환우들과 우리 가족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2. 이미 나음을 입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이사야 53:5)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노환의 고통을 이미 담당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3. 회복과 정결케 하심을 선포합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시편103:3-4)

주님께서 쇠하여진 우리의 육신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병상에 있는 성도들의 세포와 기관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고치실 것을 선포합니다.

연동교회 3남선교회 회장을 맡고 있고,
서울교통공사 6호선 한강진역에서 역장으로 근무하는

교회 안과 밖이 같은 사람 류창현 집사



하루는 어떤 일로 시작되나요?

역장은 역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열차 운행뿐 아니라 역사 시설, 직원 관리, 고객 민원, 안전관리까지 모두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열차 사고는 물론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나 역사 내 시설물 관리까지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한강진역은 다른 역과 비교해 어떤 특징이 있나요?

한강진역은 서울 중심에 있으면서도 비교적 쾌적한 역입니다. 근처에는 리움미술관도 있고, 주변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 역사 내부도 깔끔한 편입니다. 역사 벽면의 예술적인 디자인과 자연광이 들어오는 공간은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철역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이다 보니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요즘은 일반 기업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공공기관은 비교적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책임도 큽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합니다.

근무지는 계속 한강진역인가요?

아닙니다.서울교통공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순환 근무를 합니다. 역마다 규모와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근무하게 됩니다. 어디로 발령이 날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교대근무도 하시나요?

역은 365일 운영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교대근무를 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역은 하루도 쉬지 않는 공간입니다.

시민들이 잘 모르는 역장의 역할이 있을까요?

민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설 이용 불편부터 안내, 안전사고까지 다양한 상황이 발생합니다.결국 시민들이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6호선 한강진역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교회에서는 3남선교회를 섬기는 류창현 집사(제기청량리회기구역). 그의 삶은 직분보다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교회 안과 밖이 다르지 않은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태원 >>>> 6 왓두유뽀리빙 류창현 집사 >>>> 버티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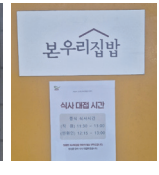
시민에게 열린 공간, 한강진역

한강진역은 서울교통공사 6호선에 위치한 역사로, 이태원과 한남동, 리움미술관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이다. 역 내부는 예술적인 벽면 디자인과 자연광이 어우러져 일반적인 지하철역과는 다른 쾌적한 분위기를 자랑한다. 특히 역 주변에는 리움미술관, 블루스퀘어, 한남동 카페거리 등이 있어 문화와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한강진역 구내식당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한강진역에서는 일반 시민도 역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평일 점심시간에 운영되는 구내식당은 서울교통공사 직원뿐 아니라 인근 직장인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에 한 끼 식사를 8천원에 12시15분부터 13시까지 제공해 꾸준히 찾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에서와 삶의 터전에서 한결 같은 모습의 류창현 집사와 함께한 "왓두유뽀리빙" 이었습니다.

다음 연못골에서 만나요. / 박동진 기자



보증보험 매니저 김지원 청년

| 나의 직업 소명 도전기

대학교에 진학한 후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였습니다. 공무원이신 아버지를 보며 성장한 덕분에 저 역시 자연스럽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수학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문과를 선택하면서도 수학적 사고를 활용할 수 있는 전공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경제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은 숫자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회와 경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저의 적성과 잘 맞았습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직접 지원하고, 전공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보험 업무를 알게 되었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취업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길고 쉽지 않았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지난해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먼저 세워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새벽기도도 꾸준히 나가고, 말씀도 읽고, 선교도 다녀오면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상황이 금방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니 이전처럼 결과에만 매여 불안해하기보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금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보증보험이 우리 생활과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이어가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에게는 보증보험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에게는 익숙한 업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보면서 제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업무 하나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자연스럽게 책임감도 더 커졌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제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큰일을 이루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저도 '언제 취업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느낀 건, 너무 결과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조급했던 마음이 조금씩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젠가 뒤돌아보면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신 과정이었다는 것을 분명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저와 비슷한 분야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김지원(☎010-71460-0522)에게 편하게 연락 주세요!

/ 기획과 진행: 송재호 기자









“우리의 교회를 찾아 10개월간 14교회를 탐방했습니다”

이정관·정신영 성도 부부



2024년 3월, 온전한 배려와 말씀의 은혜로 가득 찬 연동교회에서 마침내 영적 정착을 이루고 이제는 누군가의 멘토를 꿈꾸고 있는 아름다운 부부의 신앙 여정을 소개합니다. 바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을 일구고자 하는 이정관·정신영 성도 부부(신혼부부구역)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걸어온 신앙의 길

수능 국어 강사인 이정관 성도와 사회복지 정책연구원인 정신영 성도 부부는 결혼 3년 차, 연동교회에 등록한 지 2년이 지난 새신자 가정입니다. 그런데도 어느새 고등부 교사로, 성례팀 봉사자로 자리를 잡은 두 사람에게서는 오래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편안함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의 신앙은 저마다 다른 속도로 무르익어 왔습니다.

모태신앙인 정신영 성도는 학창시절엔 부모님을 따라 나서는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성인이 되어 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서 신앙이 자라갔다”는 그의 말에는, 물려받은 믿음이 스스로의 믿음으로 자라온 흔적이 묻어납니다. 모태신앙인이 아닌 이정관 성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 문턱만 넘었던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다름 아닌 아내였습니다. “이 상태로는 결혼할 수 없다”고 기도할 만큼 간절했던 아내의 사랑이, 나란히 무릎 꿇고 함께 새벽을 여는 사이로 이끌었습니다.

열 달, 열네 개의 교회, 연동에 이르기까지

결혼과 함께 부부는 각자 다니던 교회 대신, 우리 가정이 함께 예배드릴 교회를 스스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길음동 집 근처에서 시작해 반경을 넓혀간 발걸음은 열 달 동안 열네 개 교회에 이르렀습니다. 또래 청년들이 있는 교회와 예배 전후로 서로 마음을 나누며 같은 은혜가 흘렀는지 확인하는 것이 두 사람의 소박한 기준이었습니다.

연동교회를 처음 찾은 날, 두 사람의 마음은 청년부 낮예배에서 먼저 이끌렸고, 이후 주일예배를 드리며 목사님 설교에 마음

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정관 성도는 그 설교를 "생활 속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면서도, 목회자의 여리고 약한 부분까지 솔직하게 나누어 주시는" 말씀이었다고 돌이킵니다. 오가는 차 안에서 김주용 위임목사의 지난 한 해 설교를 모두 찾아 들었을 만큼 그 울림은 오래 남았습니다. 등록을 재촉하지 않는 분위기와, 옆자리 노 권사님이 "뉘 집 자식인지, 참 예쁘다"며 건넨 다정한 눈길이 낯선 두 사람의 마음을 당겼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를 조용히 다니던 부부는, 어느 날 스스로 등록 카드를 작성하며 연동의 새가족이 되었습니다.

양육과 헌신적인 공동체의 사랑으로 뿌리내린 소속감

등록 이후에도 많은 은혜가 이어졌습니다. 새가족 교육과 씽씽구역 모임, 16주간의 일대일 양육을 지나며 부부는 공동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신혼부부구역에 아직 또래가 없어 어색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씽씽구역 수련회를 계기로 집사님들의 따뜻한 환대와 챙김의 손길을 받으며 마음의 거리가 훌쩍 가까워졌습니다. 인상적인 순간은 담당 목회자와 함께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년부 봉사를 권유 받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고등부에 자리가 비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처 대답도 전에 고등부 부장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이정관 성도는 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다"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고등부 교사로, 또 젊은 일손이 필요하다는 권유로 성례팀 봉사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등부 교사로 섬기며 "부장님, 부감님, 권사님들이 저희를 챙겨주시고 섬겨주시는 것을 보며 나도 저런 어른이 되어야겠다, 우리 부부도 따라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게 되었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아름다운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정신영 성도는 연동교회에 대해 "처음에는 엄청 오래되고 큰 교회라 교인들끼리 잘 알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깝게 지내며 살뜰히 챙겨주는 느낌이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손수 주방봉사를 하고 마당에서 고구마와 고기를 구워 나누어 주는 장로님들의 소탈한 모습, 그리고 늘 존댓말로 의견을 존중해 주시던 교회 어른들의 태도를 가장 닮고 싶다고 꼽았습니다. 자신들도 먼 훗날 연동교회를 찾아올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멘토"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품게 되었습니다.

"세상 흔들려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를 기도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원 강단에 서는 이정관 성도와, 그런 남편을 곁에서 지탱하며 신앙의 중심을 붙들려는 정신영 성도. 이 젊은 부부의 기도제목은 오늘날 청년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세상의 물질적 성공이나 비교의식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주신 것을 다 가져가실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두 사람은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 신혼부부구역에는 5가정이 모입니다. 사이도 좋고 교제가 행복하다는 정신영 성도는 "저희는 연동이 너무 좋아서 선택했다"는 고백과 함께 "신혼부부구역으로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길 바라며, 언제나 환영한다"고 말합니다.

새로 올 신혼부부들에게도 연동교회가 매력적인 안식처로 자리매김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누군가의 아름다운 멘토로 자라갈 이정관·정신영 성도 가정이 있어 연동교회의 내일 역시 따뜻하고 밝습니다. / 박현미 편집장

소진영 간사(마커스워십)와 함께하는 찬양간증집회





5월 24일(주일) 오후예배는 음악찬양부(부장 김진양 장로) 주관으로 소진영 간사의 특별찬양간증집회로 드렸다. 소진영 간사는 마커스 워십 예배인도자(2016-2019)이며 싱어송라이터이다. 김주용 위임목사의 소개 후 찬양 및 간증이 이어졌다. 인생의 고난 속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마커스에 찬양인도자로 사역하게 된 이야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었지만 출산한 이야기 등 진솔하게 풀어갔다. 이날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오직 예수 뿐이네', '주 은혜', '실로암' 등을 불렀다. 김주용 위임목사가 소진영 간사와 마커스 사역에 대해 합심기도를 인도한 후 축도로 마쳤다. / 이지원 기자

제1남선교회 신앙수련회



5월 29일(금) 제1남선교회(회장 박재천 장로) 회원 38명은 베들레헴예배실에서 이만규 지도목사의 '만남 그 은혜와 축복'(이사야 43:1)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 후 김주용 위임목사의 기도와 함께 배웅을 받으며 인천 무의도 해상탐방로로 신앙수련회를 다녀왔다. 해물칼국수와 파전으로 점심식사 후 산책로 데크길을 따라 바다와 무의도 섬 일대의 주상절리와 기암괴석을 보면서 친교와 해안 둘레길 산책을 안전하게 마쳤다. / 안창익 안수집사(제1남선교회 총무)

여름성경학교 지도자 강습회





5월 30일(토) 무학교회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교회학교 영유아유치부·아동부 연합회 주최로 '여름성경학교 지도자 강습회'가 있었다. 각 부서별 강습에 앞서 개회 예배에서 정평진 목사(을지로교회)는 '빛의 사자들이여(시 78:1~8)' 말씀을 통해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자녀 세대의 신앙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이어 참석자들은 점심 식사 및 부서별로 찬양·율동, 전도·홍보·환경, 공과 강습 등을 들으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교단 제110회 총회 주제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사 55:7, 엡 4:31~32)"로,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여름성경학교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윤신 기자

하기폰 오카리나 야유회





5월 30일(토) 소그룹 하기폰 오카리나반 20명은 수업 후 야유회를 다녀왔다.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견학과 한옥마을 산책 후 우렁쌈밥으로 맛있게 식사하고 파주 마장호수를 산책했다. 피톤치드 가득한 대형식물원 카페에서 나눔을 갖고 사랑 가득한 야유회를 마무리했다. / 이지원 기자

제3여전도회 수련회

6월 3일(수), 제3여전도회(회장 최계숙 권사)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 남산둘레길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더게일홀에서「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질 한반도의 복음통일」이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린 후, 21명의 회원이 설레는 마음으로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출발 전 친교를 위한 마니또와 조를 정하고, 둘레길을 걸으며 서로의 삶과 기도제목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식사와 차를 나눈 뒤 마니또 선물을 교환하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부모님의 딸, 남편의 아내, 자녀의 엄마, 사회의 일원으로 각자 1인 다역을 맡아 살며 잠시 나눈 공감과 위로의 자리!! 서로를 격려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눈물과 웃음, 감





사와 소망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 되는 3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하여 주님 안에서 귀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 이현승 권사(제3여전도회 교육부 차장)

'체인지 더 월드 캠페인' 협약식



6월 10일(수) 연동교회는 기독교복음방송 GOODTV(김명전 대표이사)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조명환 회장)이 공동 기획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인 '체인지 더 월드 캠페인'에 참여하는 협약식을 GOODTV 사옥에서 가졌다. 체인지 더 월드(Change the World) 캠페인은 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해 지구촌 곳곳의 가난, 질병, 전쟁 등으로 고통 받으며 소외된 아동들에게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글로벌 후원 캠페인이다. 이 협약식에는 김주용 위임목사와 이건희 목사, 장로 여명선·김찬진·장동철·김형기, 권사 정영희·김경자께서 참석했다.

/ 김종은 기자

임산부 축복기도







6월 7일(주일) 영아부에서는 영아부 예배를 마친 후 임산부 가정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의 주인공인 두 가정을 소개한 뒤, 박상우·이지수 성도 가정의 첫 번째 선물 대빵이(태명)와 박예찬·한예은 집사 가정의 두 번째 선물 세아의 초음파 사진을 함께 보며, 건강한 출산과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었다.

이어 영아부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축복송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를 부르며 두 가정과 태아를 축복했다. 태아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편지를 아빠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시간에는 은혜와 감동이 더해졌다. 영아부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한 후, 조승연 전도사의 기도로 마무리하였다. / 박윤신 집사(영아부 부장)

출판선교팀 '연못골' 봄 수련회

6월 3일(수) 출판선교팀(팀장 박현미 권사) 연못골 편집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물맑음수목원에서 봄 수련회를 가졌다. 오전 10시에 김환 목사의 '울타리를 넘어'라는 제목의 설교로 수련회가 시작되었다. 울타리에는 '보호'와 '단절'의 기능이 공존하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못골 소식지가 교인들을 연결하는 사랑방 역할과 '믿음을 부어주는 통로'가 되기를 응원하는 말씀의 예배를 드렸다. 이후, '작약', '님프', 'Konan' 3개 팀으로 나누어 치열한 경쟁과 함께 신나는 게임을 펼쳤다. 이후 맛있는 점심과 과일들로 교제하며 오후 늦도록 대화를 나눴다./ 진상협 기자





바이브릿지 제1기 수료



4월 1일(수) 시작한 바이브릿지 제1기가 6월 10일 1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종강하였다. '성경중심 조직신학'을 과목으로 개설해 신론(하나님에 대해), 인간론(인간에 대해), 기독론(예수님에 대해), 성령론(성령님에 대해), 구원론(구원에 대해), 교회론(교회에 대해), 종말론(종말에 대해), 이단론(이단에 대해), 총 8개 내용으로 김주용 위임목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210호 세미나실에서 강의하였다.
수료자(가나다순)는 김용기 공로안수집사, 김은희3 집사, 나승호 안수집사, 문소희 공로권사, 박미경 권사, 유윤정 집사, 윤기자 사모, 이수진 집사, 이혜경 집사, 정금실 장로, 한선순 집사 등 총 11명이다. / 박현미 편집장

과목명	강사	날짜	시간	장소	수강생
성경중심 조직신학	김주용 위임목사	4월 1일~6월 10일(매주 수)	오후 4~5시	교육관 210호	11명

[소감] 위임목사님의 목회 비전인 '화해와 연결'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말씀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선교적 교회로 도약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신학의 핵심 기초를 다지고 8개의 이단을 분별하는 연구를 통해, 건강한 정통 신학 위에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의 시급함을 깨달았습니다. 매시간 말씀을 중심으로 이어진 깊은 교제는 우리 안에 건강하고 풍성한 공동체성을 향한 갈망이 가득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배운 대로 화해와 연결의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윤기자 사모



환경선교 기념 예배



6월 7일(주일) 오후예배는 경건절제 및 환경주일(매년 6월 첫 째주일)을 맞아 환경선교 기념 예배로 드렸다. 사회봉사부 부장 강철민 장로의 인도, 민홍기 안수집사(환경보전팀 팀장)의 기도, 최계숙 권사(사회봉사부 차장)의 성경봉독으로 진행하였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김정형 목사가 '땅을 쉬게 하라(레 25:1~5)' 라는 제목으로 기후 위기 시대에 창조 신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설교하였다. 1) 기후 문제는 신앙의 문제다 : 기후 위기는 단순한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돌보고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책임임을 강조하였고, 2) 지구의 역사와 인간의 점증하는 책임 : 현대 사회의 기후 위기는 인간의 활동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하나님이 부여하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간이 피조물을 돌보고 안식을 누리게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역설하였고, 3) 새로운 미래를 향한 공동-창조자의 소명 : 경제 성장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람 모두가 안식할 수 있는 '느림'과 '돌봄'의 가치를 회복할 것을 제안하였다. / 고현수 기자

HI청년공동체 선교바자회





6월 14일(주일), HI청년공동체는 단기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진행했습니다. 선교팀과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기도짝들은 주일 아침을 깨워 오전 8시부터 바자회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기증 받은 물품들, 각종 음식들부터 송하람 자매와 구자현 자매가 제작한 스티커, 엽서, 티셔츠 등의 자체 제작 굿즈들과 황보예원 자매의 주도로 선교팀이 시간을 내어 제작한 비즈팔찌까지 이번 바자회에서만 구매 가능한 한정판 물품들도 판매되었습니다. 바자회는 9시 30분부터 13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제직분들이 만드신 블루베리잼, 소머리국밥이 인기가 좋았고, 비즈팔찌 또한 빠르게 매진되었습니다. 베레모와 팔토시를 착용하고 포스터를 목에 건 채 홍보했던 구두닦이는 특히 남자성도분들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금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청년들을 성도들은 귀엽게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 결과 선교 바자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고 이를 이끈 조민경 선교팀장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떠올랐던 선교바자회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 남다은 기자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사회봉사부 '사랑의 쌀 나누기' 성료



쌀 207kg 및 봉헌금 468만 원 모금… 종로 일대 이웃과 쪽방촌 선교지에 전달

사회봉사부(부장 강철민 장로)는 6월 14일, 21일 두 주일 동안 교회 앞마당에서 2026년 상반기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성도들의 따뜻한 관심과 동참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봉사부 교역자와 임원을 비롯한 14명의 섬김이들이 주관한 이번 행사를 통해 쌀 207kg의 현물과 함께 총 4,681,000원의 소중한 봉헌금이 모금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으로 모인 쌀과 봉헌금은 열흘 뒤인 6월 26일(금),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었습니다. 주요 지원처는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인 종로 5·6가동주민센터를 비롯해, 쪽방촌 선교를 이어가고 있는 등대교회, 그리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따뜻한 밥상' 등입니다.

특히 26일 진행된 배송 봉사에는 박주안 목사, 강철민 장로, 김성영 장로, 전중희 공로안수집사, 한정호 집사, 김태곤 집사가 직접 참여해 각 지원처에 물품을 안전하게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사회봉사부 측은 "경제가 어렵고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일에 아낌없이 마음을 모아주신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온정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 임재철 기자

고형원 선교사 초청 찬양간증집회





6월 19일(금) '6월 교구전체모임'은 고형원 선교사의 찬양간증집회로 진행되었다. 예수전도단에서 활동했던 고형원 선교사는 1997년에 세워진 부흥한국 대표이자 싱어송라이터이다. 교구전체모임을 위해 직접 작사한 8곡으로 찬양했는데, 찬양곡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비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부흥', '부흥2000', '마라나타'이다. 그리고 이날 집회는 예배와 모임을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한 열림홀에서 열렸는데, 더 좋아진 음향과 백월(back wall) 화면으로 찬양집회의 은혜가 더해졌다. / 양진실 기자

부용찬양대와 함께 드리는 수요기도회



6월 17일(수) 부용찬양대(2부예배 찬양대)가 주관해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찬양으로 수요기도회가 열렸습니다. 2026년에 특별히 기획된 '찬양대와 함께하는 3회의 수요기도회에 첫번째 발자국을 어떻게 시작할 지 부용찬양대는 고민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음악은 매우 다양해졌고, 새로운 CCM과 워십송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 성도들의 삶과 함께한 찬송가를 정작 함께 부를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찬송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신앙고백이며, 시대를 초월하여 교회를 하나로 이어주는 영적 유산입니다. 수많은 찬송가에 성경적 진리와 구원의 감격, 가사와 헌신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부용찬양대와 함께 드리는 찬송가」는 이러한 찬송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성도들과 함께 부르는 찬송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세대와 취향을 넘어 하나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하나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이 날 본당의 좌석은 파트별로 구분해 팻말이 세워졌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서며 본인의 음역에 맞게 앉도록 하였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부용찬양대 지휘자 방영호 집사가 앞에 나와 하나되는 목소리를 담도록 지휘를 했습니다. KBS교향악단의 바이올린 주자로 38년을 일했던 방영호 집사는 그간의 경험과 연결시켜 클래식 음악의 선율에서 따온 찬송가 두 곡을 선곡했습니다.

베버의 마탄의 사수 서곡을 영상으로 짧게 감상한 후, 첫번째 곡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를 함께 불렀습니다. 처음엔 제창으로, 다음엔 알토, 테너, 베이스 각 파트별 연습을 한 후 4성부의 화음을 맞췄습니다. 멜로디만 제창할 때보다 각 성부의 어우러짐으로 풍성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곡은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4악장의 멜로디에서 따온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를 같은 방법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하나님의 창조 세상은 참으로 조화로운 어울림으로 가득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색깔과 소리들이 어우러져 더욱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로 가장 아름다운 어울림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참여하며 찬송의 기쁨을 나누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교회가 찬송가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시편 150:6)

/ 김진 권사(부용찬양대 반주자)

새로운 출발, 새가족 수료식과 만남의 날



6월 28일(주일) 2026년 상반기 새가족 수료식과 만남의 날이 은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수료식은 기존의 주일 오후 만남의 날 행사와 오후예배 순이던 수료식을 온 성도들의 축하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3부 예배 시간으로 옮겨 더욱 뜻깊은 자리로 만들기로 하고 준비한 첫 번째 수료식이었다.

2026년 상반기 새가족 수료자

순서	교구	구역(명)	새가족 이름	자치기관
1	1	명륜연건(2)	이귀례	1여전도회
2			김정임	3여전도회
3		마포용산(2)	김춘순	2여전도회
4			정수연	
5		원남(1)	이승연	3여전도회
6	2	성북1(1)	최희선	
7		성북2(1)	심현희	4여전도회
8		용인(1)	이루라	4여전도회
9	3	안국평창(1)	한경순	3여전도회
10		광진중곡(1)	이레이나	4여전도회
11		서초방배(2)	손상돈	1남선교회
12			이유림	2여전도회
13	4	이화(1)	임지은	3여전도회
14	5	드림2(1)	홍승희	해당없음
15		해피3(2)	윤길중	4남선교회
16			김경원	4여전도회
17		드림3(2)	이동헌	4남선교회
18			여지민	4여전도회
19		신혼부부(2)	손민기	해당없음
20			윤준형	해당없음

새롭게 변화된 순서는 예배 설교 후 여러 교우 앞에서 연동의 새가족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호명되는 축복의 수료식(1), 김주용 위임목사와 소박하지만 즐거운 식사(2), 화려하진 않지만 정성 어린 다과와 친교의 시간(3)을 통해 교제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여 진행했다.

아름답게 꾸며진 공간, 손수 준비한 풍성한 다과, 모인 모두가 함께 부르는 찬양의 소리, 여기저기 도란도란 나누는 담소와 끊이지 않는 웃음이 어우러진 베들레헴예배실은 기쁨으로 충만했으며 특히 새가족이 들려준 의욕 넘치는 한 마디 한 마디의 진솔한 소감과 다짐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연동의 미래가 사뭇 기대되기에 더 감사한 시간이었다.

끝으로 변화를 통해 연동의 새 역사와 전통을 세워가는 새가족부(부장 심현숙 장로)와 함께 세 겹 줄로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큰 힘이 되어주시는 양육 섬김이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모두의 축제로 마칠 수 있게 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 드린다.

/ 이미열 권사(새가족부 관리팀장)

소그룹 '소리터', 찬양의 향기가 흘러간 자리





세대를 초월한 힘 있는 찬양! 5월 24일(주일), 소그룹 '소리터'가 예수사랑교회(도봉구 소재)를 방문하여 은혜로운 찬양을 나눴습니다. 현재 소리터는 지도자 한정호 집사를 비롯한 일부 50대 대원을 제외하면, 올해부터 합류한 최고령 84세 백성기 성도님을 비롯해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를 넘긴 고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이를 무색케 하는 힘 있는 찬양으로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류태우 담임목사는 "본 교회 교인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 주어 큰 은혜를 받았다"며 따뜻한 감사와 응원의 격려를 전해왔습니다.

청계천 버스킹에서 피어난 놀라운 기적 6월 21일(주일) 오후, 청계천 삼일교에서 길거리 버스킹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수많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현장에 있던 길상사에 다니는 불자 한 분이 즉석에서 회원으로 합류를 결심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주 토요일(6월 27일) 모임부터 동참한 이 회원은 수업에 큰 기쁨을 느끼고, 다음 주에는 지인인 예능교회 권사까지 소리터로 초대했습니다. 여기에 연동교회의 기존 성도들과 새신자 3명까지 추가로 합류하면서, 소리터는 교단과 종교를 초월해 노래와 배움의 기쁨으로 사람들을 잇는 열린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풍성한 교제와 비전 새신자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소리터에는 새로운 영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원들이 자발적으로 토요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등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7월 현재, 소리터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기쁨 넘치는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이를 뛰어넘는 열정으로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여 드릴 소리터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허선미 권사(소리터 기타반 초급 교사)

YBS 봄학기 종강

강좌	강사	시간	일시(시작~종료)	수강인원	기타
성경 낭독 및 암송	오한빛	화,수,목,금/ 오전 6시	3월 10일~7월8일	7명	Zoom
평신도 전도폭발 훈련	이건희	목/ 오전 10시	3월 12일~5월14일	4명	1단계 코스
데바레카 주해반 I	김 환	토/ 오후 12시	3월 14일~4월 18일	89명	모세오경(유튜브)
데바레카 주해반 II	이진우	토/ 오전 7시	3월 21일~6월13일	29명	여호수아~욥기
제40기 결혼 예비학교	계대윤 목사 외	토/ 오후 2시	3월 28일~5월 2일	5커플	다사랑 조이홀
데바레카 묵독반	박주안	토/ 오후 7시30분	3월 26일~6월 6일	5명	Zoom

데바레카 성경통독 수련회



6월 27일(목)부터 29일(토)까지 데바레카 성경통독 수련회가 강화수양관에서 있었다. 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접수를 받고 7시 교회버스로 강화로 출발. 가는 도중 비도 많이 내려 걱정했지만, 수양관에서의 3일은 맑음이었다.

첫째 날, 도착하자마자 저녁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맛나게 먹고, 최은주 장로의 기도로 시작된 예배는 김주용 위임목사의 예언의 두 가지 뜻(사 6:5-13)말씀이 있었다. 바로 이어서 첫날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겐 아쉬움이 남을 이진우 목사의 시편 강의를 듣고 첫날은 마무리했다.

둘째 날, 아침 위임목사의 절기와 약속을 지키라(나훔 1:9-15)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 이건희 목사(잠언), 김환 목사(전도서, 아가)의 강의가 있었고, 6개조로 나눠 조별 프로페짜이(묵독반) 시편 91편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점심식사 후 오한빛 목사(이사야) 성경강해 후 수양관 근처 저수지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이틀 동안 주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 바로 이어 성경통독 3팀으로 나눠 잠언(미디어성경통독반), 예레미야(윤독반), 시편 91편(암송반)으로 나눠 1시간 가량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고 암송했다. 이어서 계대윤 목사의 예레미야 강의로 둘째 날 성경강해는 모두 마쳤다.저녁은 위임목사와 부목사, 장로들이 함께 구워주신 삼겹살과 볶음밥을 수양관 마당에 차려 어느 야외정원이 부럽지 않게 맛있는 식사를 즐겼다. 저녁식사 후 이진우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저녁집회에서 뜨겁게 찬양드리고, 이어서 위임목사의 거룩한 부담감(행 23:11)이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회로 마무리했다. 이후,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될 뻔한 이건희 목사의 공동체 훈련시간은 참석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웃고 즐기는 귀한 힐링의 시간이었다. 잠자기 전 마지막 간식으로 맛있는 메밀국수를 준비해 주셔서 시원하고 맛있게 먹었다.

셋째 날, 아침 위임목사의 인도로 공의의 심판 속 영광의 회복(홈 2:1-7)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새벽기도회를 드리고, 아침식사는 어제 저녁처럼 야외에서 근사한 브런치 식사를 했다. 이틀 동안 각자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내가 받은 은혜는 어디쯤이었는지 한번 더 생각해보고, 각자의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다 다름에 다시 한번 놀라고 귀한 시간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하며 마쳤다. 바로 이어서, 위임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을 떼제 형식으로 드리고, 서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3일의 데바레카 성경통독 수련회를 마무리했다. 참석인원은 총 59명이었고, 영성훈련부(부장 최은주 장로) 데바레카성경통독팀(팀장 송상경 안수집사) 팀원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식사 및 간식이 풍성했으며, 목사님들의 명강의는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안겨주었다./ 김종은 기자



여는 예배



떼제 형식으로 드린 성찬식

〈소감〉

할렐루야! 영등포구로구역 손지원 집사입니다. 사실 저는 데바레카 성경통독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아침 출근길마다 어머니(박현옥 은퇴집사/80세)께서 들으실 때 귀동냥하듯 들었는데 성우들의 목소리와 배경음악 등 들을 때마다 재밌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6 데바레카 성경통독 수련회가 있다는 광고를 듣고 어머니께서 함께 참석하자고 하셨습니다. 어릴 적 외할머니 모시고 어머니와 함께 기도원에서 기도드리던 생각도 나서 신나게 준비하고 참석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모든 행사는 은혜롭고, 우리 목사님들 다재다능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주일학교 때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들도 오랜만에 만나 담소도 나누고, 이번 참석자 중 막내로 귀여움도 듬뿍 받았습니다. 또한, 봉사하시는 분들의 정성어린 식사 섬김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중 둘째 날, 저녁 수양관 마당에서 위임목사님과 여러 목사님, 장로님이 구워주신 삼겹살과 볶음밥의 맛은 정말이지 엄지척 꿀맛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꿀맛, 이건 드셔보셔야 알아요. 내년 수련회 때는 참석하셔서 꼭 맛보세요.(내년에도 기회가 있으려나?)

시편과 잠언의 말씀이 눈과 귀에 그리고 가슴에 쏙쏙 새겨진 귀한 시간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수련회 다녀오는 귀한 추억을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 쉿! 비밀인데요. 제가 경험해 봐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동교회 성도님들 부모님 모시고 데바레카 성경통독 수련회 다녀오세요. 정말 강추합니다. 더운 여름 영육간의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손지원 집사(영등포구로구역)



성찬식을 마치고 '사랑의 나눔' 찬양을 부르며

제3남선교회 신앙수련회






제3남선교회(회장 류창현 집사)는 7월 3일(금)부터 4일(토)까지 1박 2일간 강화수양관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를 주제로 수련회를 개최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새롭게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첫째 날에는 이진우 목사의 인도로 예배와 나눔의 시간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적어보고, 그것을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한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쉽게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자신과 가족, 교회 성도들, 그리고 주변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특히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집회가 끝난 후에는 수양관 마당에 마련된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지난 추억을 나누며 친교를 이어갔다. 웃음과 감사가 넘치는 대화 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강화군 인근의 메타포레스트를 방문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식사와 친교를 나누었다.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회원 간의 사랑과 교제를 더욱 깊게 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 / 남득현 집사(제3남선교회 서기)



7, 8월 행사안내

월	일	행사(예정)
7	24일(금)-26일(주일)	유년,초등부 여름수련회(강화수양관)
	25일(토)	환경선교사과정 수료식(드보라의 방)
	26일(주일)	이단대책세미나 (오후예배시, 본당)
	31일(금)-8월 2일(주일)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강화수양관)
8	2일(주일)	이단경계주일
	6일(목)	목요기도회(오후 7시, 베들레헴예배실)
	6일(목)-8일(토)	주니어앙상블 여름수련회(대부도 그랑비치 팬션)
	9일(주일)	해방기념주일
	14일(금)-16일(주일)	청년부 여름수련회(강화수양관)
	22일(토)	새학기 자녀축복기도회, 러브릿지_ON(溫)
	27일(목)	출근길 직장인섬김 및 새학기 응원 전도활동
	30일(주일)	유아,유치부 위임목사 순회예배(학부모간담회), 당회(오후 2시 30분, 위즈덤하우스)
9	1일(화)	YBS 개강, 가을정기심방 시작
	2일(수)	구역장성경공부 개강, 실버아카데미 개강
	3일(목)	목요기도회(오후 7시, 베들레헴예배실)
	6일(주일)	총회주일, 제직원 헌신예배, Vision Talk Day(새해 목회정책 토론회), 제직회
	9일(수)	기독교가치관세미나(수요기도회시, 본당)



성례주일 세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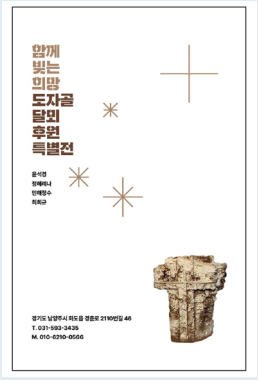
7월 5일 세례주일 2부예배 시간에 입교·세례식이 있었다.

입교 : 김승진(남, 압구정청담삼성구역), 안하영(여, HI청년공동체)

세례 : 금재은(여, 중등부), 서장훈(남, HI청년공동체), 최희선(여, 성북1구역), 황규백(남, HI청년공동체)

〈전시 안내〉

'함께 빚는 희망, 도자골 달뫼 후원 특별전'



도자골 달뫼 대표이자 도예가인 윤석경 타교권사(구리남양주양평구역)가 7월 1일(수)부터 31일(금)까지 도자골 달뫼에서 '함께 빚는 희망, 도자골 달뫼 후원 특별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서로 다른 예술의 언어로 표현된 작품들이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어 도자골 딜뫼의 내일을 밝혀주길 기도하며 조각가 정혜례나, 회화작가 민해정수, 최희규 작가가 함께 마음을 모아 마련했다.

7월 4일(토)에는 전시 오프닝과 축하공연이 열렸다. 김환 목사의 인도로 예배를 드린 후, 유정현 대표의 진행으로 피아니스트 송민지, 소프라노 양제경, 가수 이완수가 출연하는 음악회가 이어져 은혜 가운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전시에 대해 윤석경 권사는 "이제 모든 작품을 서서히 정리해야 할 늦은 나이, 모든 것이 사랑이며 또한 감사"라고 말하며, "이성적이기보다는 매우 감성적으로 살아왔지만,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내려놓음을 준비하려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 박현미 편집장

▶전시 기간: 7월 1일(수)~31일(금)

▶참여 작가: 윤석경, 정혜례나, 민해정수, 최희규

▶전시 장소: 도자골 달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110번길 46-1)

기독도예가 윤석경 작가와 십자가(유튜브)

▣ 연동복지재단 (상임이사 최현수 장로)



5,6월 러브릿지"溫(ON)" - "초여름의 싱그러운 동행"

▶ 계절이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5월과 6월에도 러브릿지온의 사랑의 온도는 식지 않았다. 러브릿지온은 창신동 쪽방촌 80가정을 찾아가 제철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외로운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함께 웃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매달 든든한 버팀목인 청년부를 중심으로 각 부서가 돌아가며 연합하는 기쁨이 이번에도 풍성했다. 5월에는 초등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다문화 6 가정을 신실하게 섬기는 1남선교회(총 5명) 중 추가로 2명의 회원이 쪽방촌 사역에 따로 손길을 보탰다. 이어서 6월에는 2여전도회 9명의 회원들이 기쁨으로 동참하여, 어머니의 따뜻한 품처럼 풍성한 사랑을 온 마을에 전했다. 감사하게도 7월부터는 러브릿지온의 지경이 더욱 넓어진다. 기존에 섬기던 다문화 가정에 7곳을 더 추가하여 총 13 다문화 가정을 함께 품고 돌보게 된다. 세대와 국경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이 걸음에 늘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연동어린이집(원장 조주은 집사)



5월 "[가정의 달 행사] 하원이 기다려지는 하루! 행복이 이어지는 순간!!"

▶ 5월 8일 [열린어린이집/행사] 가정의 달 행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연지물놀이터에서 '하원이 기다려지는 하루! 행복이 이어지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가족 참여 행사를 진행했다. 영유아와 가족들은 카네이션 바구니 만들기, 커피박 점토 키링 만들기, 우리가족 소원 적기 활동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에어바운서와 기차놀이기구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며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특히 커피박 점토를 활용한 키링 만들기 활동을 통해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놀이를 경험하며 환경 보호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으며, 자연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감을 느끼고, 어린이집과 가정이 함께 소통하며 친환경적 가치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연동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수미)



6월 "서울대치의학대학박물관 견학"

▶ 연동지역아동센터는 '서울대치의학대학원박물관'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수업은 박물관 관장님과 연구사님이 직접 아이들을 지도해주셔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치과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배우며 치의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고, 과거에 실제로 사용되었던 다양한 치과 치료 도구들을 직접 관찰하며 흥미롭게 수업에 참여했다. 또한 올바른 칫솔질 방법과 치실 사용법을 직접 실습해 보며 건강한 구강 관리 습관을 익히는 유익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견학을 통해 아이들이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스스로 구강 위생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뜻깊은 경험의 시간이었다.

신협 현황

(5월 31일 현재) 총 조합원수 : 2,642명(단위:천원)

부채 및 자본금	출자금	예탁 및 적금	적립금	기타부채	합계
	5,979,416	39,251,413	2,582,266	808,057	48,621,152
유동 자산	총대출금	투자금	현금	제세금	합계
	32,448,297	768,023	90,286	15,314,546	48,621,152

(6월 30일 현재) 총 조합원수 : 2,642명(단위:천원)

부채 및 자본금	출자금	예탁 및 적금	적립금	기타부채	합계
	5,978,490	38,777,382	2,565,668	762,191	48,083,731
유동 자산	총대출금	투자금	현금	제세금	합계
	32,189,096	1,833,148	69,448	13,992,039	48,083,731

목양위원회

■결혼식

• 김진원(김옥기 안수집사, 황현숙 권사 아들/삼선구역) 군과 옥주희(옥승훈 님, 김일숙 님 딸) 양- 5월 30일(토) 오후 2시 30분 아펠가모(공덕) 7층 마리에홀

• 이종욱(이규진 안수집사, 박재경 집사 아들/연희홍제구역) 군과 오도윤(오태호 님, 조경순 님 딸) 양 - 6월 20일(토) 오후 1시 소노펠리체 컨벤션 3층 다이아몬드홀

• 조준용(조영래 안수집사, 양희남 권사 아들/초등부 지도전도사)군과 김희진(김윤찬 장로, 박미선 집사 딸)양 - 6월 20일(토) 오후 2시 아펠가모 잠실 2층 그랜드볼룸홀

■장례식

• 오건작 은퇴안수집사(김영이 은퇴집사 남편, 오중훈, 오수연, 오화연 집사 부친, 고소정 집사 시부, 노승규, 조진우 집사 장인/잠원반포구역) 별세, 5월 25일 천안공원묘지에 모심

• 정찬모 타교장로(정영석 집사 부친, 조은정 집사 시부/드림2구역) 별세, 5월 28일 이천 호국원에 모심

• 이평안 성도(조중희 공로안수집사 모친, 김경은 권사 시모, 조유경 성도 조모/마포용산구역) 별세, 6월 1일 연동동산에 모심

• 박찬명 은퇴집사(서영자 명예권사 남편/화양자양구역) 별세, 6월 9일 철원군 선영에 모심

• 조태경 타교장로(조선영 집사 부친, 진상협 집사 장인/명일하남구역) 별세, 6월 16일 칠곡교회 묘지에 모심

• 김재순 집사(오경덕 명예권사 남편, 김민호, 김선호 성도 부친/삼선구역) 별세, 7월 1일 연동동산에 모심

• 이신애 공로권사(김희경 권사 모친, 안경애 집사 시모, 김나혜 성도 조모, 김근영 성도 외조모/연희홍제구역) 별세, 7월 6일 연동동산에 모심

*6-7월호(627호) 연동컬러링에 색칠해 사무처 혹은 연못골 이메일(ydpc3000@gmail.com)로 9월 6일(주일)까지 보내주세요. 추첨해 상품권(5000원)을 드립니다. 색칠하기가 돋보인 컬러링은 다음 호에 실립니다. 주일학교 학생은 소속 부서를 꼭 적어주세요.



(이름: 연락처: 소속:)

4-5월호 '연동컬러링'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5,000원 상품권)



강효원(유치부)-2634



김혜자(백주년구역)-2812



남상옥(효제구역)-4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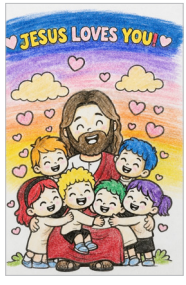
성열숙(낙산구역)-0647



여주미(종로5.6가구역)-5465



장경희(성북1구역)-3171



장형윤(성북1구역)-0830

연 못 골 제 58권 627호

●창간일 1969년 1월 26일
●발행일 2026년 7월 19일
●발행인 김주용 편집인 김성영 지도목사 계대윤 편집장 박현미
총무 진상협 원고접수 ydpc3000@gmail.com
기자 고현수 김종은 남다은 박동진 박윤신 송재호 양진실 이경아 이지원 임재철 조유경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우편번호 03128)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7 전화 (02)3676-3000, (02)763-7244
위임목사실 (02)3673-5100 팩시밀리 (02) 745-5905 인터넷 http//www.ydpc.org
●상담실 (02)766-0675 연동복지재단 (02) 3673-0086 강화수양관 (032)932-2929

사진으로 보는 연동

















행복한 연동인

당신이 있어 연동이 행복합니다











한 계절이 자신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과 장맛비 치열하게.

계절이 온 힘을 다해 자신을 살아내듯,
하나님 앞에 선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6-7월호(627호)